

중장년 퇴사 후 노동시장 재진입 Soft Landing 사례연구

– 동일기업 사무직 군 중장년 퇴직자 대상

조영기 구본용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연구주체가 되어
50+세대의 현장 중심의 구체적 이슈와 삶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성과를
엮은 것으로 참여한 연구진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중장년 퇴사 후 노동시장 재진입 Soft Landing 사례연구

— 동일기업 사무직 군 중장년 퇴직자 대상

조영기 구본용

목차

요 약	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2
1) 질적 사례연구	2
2)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면담	3
3) 연구진 회의	4
4) 전문가 자문	4
5) 문헌 조사	4
6) 질적 사례연구 진행 과정 및 절차	4
3. 연구 대상	5
1) 개요	5
2) 선정기준	6
3) 대상자 현황	7
4. 사전 질문지 구성	7
1) 질문지 개요	7
2) 질문지 구성항목과 내용	8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한국 사회 신중년 퇴직과 삶의 현황	9
1. 중장년 퇴직 현황	9
2. 사무직 퇴직자 삶의 현황	11

제2절 소프트랜딩 용어 정의	11
1. 사전적 정의	11
1) Soft landing	11
2) 소프트랜딩 개념	11
3) 유사 정의 추출 및 개념(항공용어)	12
2. 조작적 정의	12
제3장 사례 및 분석 결과	13
제1절 조사대상 특성	13
1. 공통적 특성	13
1) 근무 형태 - 동일업종 동일기업 20년 이상 근무	13
2) 연령 - 실제 나이 및 퇴직 시점 50대	13
3)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회사 권고사직	13
4) 희망퇴직제도 활용	14
2. 차별적 특성	14
1) 재직 중 직무 내용 차이	14
2) 퇴직 후 생활거점 지역 차이	15
제2절 퇴직 및 재취업 사례(개인별)	15
1. 김강복, 전통시장 매니저	15
2. 전대전, 공공기관 통계조사원	17
3. 이충남, 공기업 경영지원 관리자	19
4. 조강남, 입시학원 생활 관리자	22
5. 이일산, 유통업 영업관리자	24
6. 박부산, 대출상담사	26
제3절 소프트랜딩 요인별 사례	28
1. 개인적 요인	28
1) 명확한 구직 동기 및 적극적 활동	28
2) 직무경력 활용	29
3) 자격증 취득 활동	30
2. 사회적 요인	32
1) 가족의 심적, 경제적 지원	32
2) 인적 네트워크 활용	33
3) 사회참여 활동과 학습	36
3. 지역적 요인	37
1) 수도권 지역 정보 접근성 우위	37
2) 재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38

제4장 결론 및 제언	39
제1절 연구 결론	39
제2절 소프트랜딩(안착) 요인 분석	42
1. 개인적 요인	42
1) 일자리를 갖게 된 동기가 뚜렷	42
2) 직장생활 경력과 경험	43
3) 필요 자격증 소유	43
4) 발로 뛰는 구직활동	43
2. 사회적 요인	44
1) 가족의 지원	44
2)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	44
3) 고용보험센터 구직활동 시스템	44
4) 잘 갖춰진 취업포털 시스템	45
3. 지역적 요인	45
제3절 정책적 제언	46
1. 정부와 관계기관	46
1) 장기간(복수 연도 이상)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46
2) 50+세대 퇴직자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 재정립과 홍보 확대	46
3) 50+세대 실업급여 신청 시 의무교육 별도 진행	47
4)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및 적극적 홍보	48
5)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48
2. 지자체	49
1)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금전적 보상제도 확대 및 다양화	49
2) 50+세대 지원 기관의 지역별 설치 확대	49
3. 기업	50
1) 50+세대 퇴직자 대상 경력관리 프로그램 홍보	50
2) 퇴직자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기업 확대	50
4. 개인	50
1) 개인별 전략적 퇴직 관리 계획 수립	50
2) 개인 직무경력기술서 작성	50
3) 미래 진로연계 자격증 취득 및 IT와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	51
제4절 연구 활동 한계점	51
1.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의 한계	51
2. 지리적 접근의 한계	52
3. 최초 표본 샘플 수와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의 대상 샘플 수의 한계	52

4. 재취업 외 다양한 사례의 한계	52
5. 본 연구의 가치 및 추가 연구 필요	52
부록	54
참고문헌	74

표 목차

[표 1-1] 질적 사례연구 진행 과정 및 절차	5
[표 1-2] 연구참여자 현황	7
[표 1-3] 연구참여자 질문지 구성항목과 질문 내용	8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대상자 김강북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16
[그림 3-2] 연구대상자 전대전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17
[그림 3-3] 연구대상자 이충남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19
[그림 3-4] 연구대상자 조강남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22
[그림 3-5] 연구대상자 이일산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24
[그림 3-6] 연구대상자 박부산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26
[그림 4-1] 연구참여자별 안착요인 연결표	42

요 약

□ 연구 필요성

-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최근 고용불안 상황에서 50+세대가 비자발적 퇴사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구직을 시도하고 성공하는지 실증적 사례연구가 필요함
- 기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불특정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의 진로 결과와 성공요인 분석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연구는 비교적 유사한 직장 경험을 가진 이들이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제2 인생을 설계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사례 조사함. 특히, 동일기업 출신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관계 맺고 잘 알아왔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연구 당사자와 동일기업 내 장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안착요인과 정책적 제안을 찾아보고, 50+세대가 더욱 행복하고 액티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퇴직 전 경력을 파악하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소프트랜딩 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연구 내용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주된 일자리 경력, 퇴직 후 재취업 준비, 현재 일자리의 구직 동기와 방법, 미래

계획, 당부 및 소감 등을 파악함

- 연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퇴직한 동료 중 정규직 혹은 계약직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한 자로 선정함.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특성은 ① 동일기업에서 20년 이상 근속 경력의 직장 동료 관계 ② 현재 같은 50대 중장년으로 개인별 평균 연령 56.3세, 퇴직 시점 평균 연령 51.7세 ③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권고사직 ④ 회사의 희망퇴직제도 활용 등이 있음
- 연구 방법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동일기업 내 근무한 최근 5년 내 중장년 퇴직자들의 퇴직 후 개인별 활동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회통계학 자료 및 퇴직 전후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논문 자료를 포함한 문헌 조사와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면서 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방법을 실행하였음. 이에 연구 목적과 내용에 부합한 질문지를 사전 설계하였고, 개별 면접 대상별 사전 공유, 대면 인터뷰 진행 후 전화, SNS와 온라인 소통 등 후속 면담을 통한 자료의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정리함

□ 연구 결과

- 중장년 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소프트랜딩 방안으로는 연구대상자를 통한 질적 조사 연구 결과로 나온 개인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으로 분류함
 - 개인적 요인
 - ① 일자리를 갖게 된 뚜렷한 동기
 - ② 직장생활 경력과 경험 활용
 - ③ 자격증 취득 활동
 -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사회적 요인
 - ① 가족의 심적 경제적 지원

②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

③ 고용보험센터 구직활동 시스템

④ 잘 갖춰진 취업 포털시스템

- 지역적 요인

① 지역적 정보 비대칭성과 편향성

② 재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 정책적 제안으로는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개인으로 구분하여 제 안함(일부 내용은 공통 추진과제임)

- 정부와 관계기관

- 장기간(복수 연도 이상)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확대, 50+세대 퇴직자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 재정립과 홍보 확대, 실업급여 신청 시 50+세대 대상 의무교육 별도 진행,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 이외 취업 일자리 적극 알선,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지자체

-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체 대상 금전적 보상제도 확대 및 다양화, 50+세대 지원 기관의 지역별 설치 확대

- 기업

- 기업체 중장년 고용 캠페인 확대 차원에서 기업체 퇴직 프로그램 내 50+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책자 배포, 퇴직자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기업 확대

- 개인

- 개인별 전략적 퇴직관리 계획 수립, 직장생활 개인 이력과 직무기술 정 리를 퇴직 전 미리 준비, 자격증 취득, IT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

□ 연구 기대효과

○ 연구 기대효과는 실증적, 현실적 케이스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고, 질문조사에 응한 개개인 인생에 대한 회고와 정리의 시

간을 제공함

-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은 기업 퇴직자 커리어 플랜 설명회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평소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여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 보고자 함

□ 연구 활동 한계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연구참여자들과 직접 대면 및 지리적 접근의 한계로 당초보다 최종 표본 수가 축소됨
- 연구 결과물 도출 기간이 부족하고 재취업 이외 다양한 소프트랜딩 사례를 포함하지 못하여 연구 확장이 제한됨
- 따라서 위 한계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가 50+세대의 모든 사례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 하지만 2020년 5월부터 1,000명 이상 기업체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가 제도 시행 전 퇴직하였고 이후 재취업까지 가교 역할을 한 소속회사의 희망퇴직제도(계약직 근무)를 활용한 본 연구보고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함. 향후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표본을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통계청(2020.7월)¹⁾의 '2020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 세대(50세~65세)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평균 49.4세(남자 51.2세, 여자 47.9세)에 퇴직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7.0개월(남자 19년 3.2개월, 여자 11년 9.8개월),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등이 33.2%, 건강상의 이유가 19.3%를 차지
- 통계청 조사결과 50+세대 대상자들은 퇴직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50+세대 구직 경험자 비율은 19.1%, 취업경험자 비율은 65.3%로, 주된 구직경로는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 35.8%, 공공 취업 알선기관 33.4%, 민간 취업 알선기관 9.9%이며,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7.4%, 희망 근로 상한 나이는 평균 73세임
-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최근 고용불안 상황에서 50+세대가 비자발적 퇴사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구직을 시도하고 성공하는지 실증적 사례연구가 필요함
- 기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불특정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의 진로 결과와 성공 요인 분석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음

1) 통계청 보도자료(2020.7.28.).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이 연구는 비교적 유사한 직장 경험을 가진 이들이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사례 조사함. 따라서 동일기업 출신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관계를 맺고 잘 알아 왔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최근 수년 내 퇴직자들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더욱 실증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보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내용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함

2. 연구 목적

- 연구 목적은 연구당사자와 동일기업 내 장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퇴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안착요인과 정책적 제안을 찾아보고, 50+세대가 더욱 행복하고 액티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퇴직 전 경력을 파악하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소프트랜딩 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연구 내용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주된 일자리 경력, 퇴직 후 재취업 준비, 현재 일자리의 구직 동기와 방법, 미래 계획, 당부 및 소감 등을 파악함

2.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연구

-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

이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Creswell, 2007)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및 분석 대상에 접근하여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해내는 연구 방법임

- 이번 연구는 동일기업 내 근무한 최근 5년 내 중장년 퇴직자들의 해당 기업 퇴직 후 개인별 활동사례들을 조사하여 각 사례에 대한 경험을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채택함

2)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면담

- 기존 연구가 상이한 전직 경력과 상황 경험 표본 간의 비교분석인데 반해, 이번 사례연구에서는 동일 산업, 동일기업에서 유사한 직장경력을 가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퇴직 이후의 삶과 오랜 기간 형성된 라포르(rapport)에 기반하여 최근 수년간 퇴직 이후의 삶과 ‘소프트랜딩’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였음
-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최근 5년 내외의 퇴직 인력 중 소프트랜딩한 대상을 선별하여 표본으로 확정함. 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최근 5년 이내 퇴직한 동료 중 정규직 혹은 계약직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한 자
-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선정된 연구참여자들 1:1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음
-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녹취 후 보다 정밀한 응답을 얻고자 3단계 면담 과정을 거침
 - 첫째, 취지 안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화로 사전에 통화하고 이메일로 질문지를 전달하여 사전에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
 - 둘째, 직접 만나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 진행함
 - 셋째,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와 SNS 채널을 통해 소통하였음
- 후속 면담을 통한 자료의 보완

- 자료 정리과정에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질문과 재면담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
- 면담 과정상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충과정을 거침

3) 연구진 회의

- 문헌 조사와 개별학습 결과물에 대해 연구진 간의 정기 면담을 통해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표본선정방식 및 선정, 인터뷰 실행,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결과 정리과정까지 연구진 간의 긴밀한 면담과 논의과정을 추진함

4) 전문가 자문

- 자체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학습수행 이후 수집표본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진에 의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연구 목적과 방향성 설정, 연구 편향성 보완을 점검하기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진행함

5) 문헌 조사

- 50세 전후 직장 퇴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계학 자료와 퇴직 전후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논문 자료를 포함한 문헌 조사를 병행함

6) 질적 사례연구 진행 과정 및 절차

-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그동안 모은 자료를 준비하고 조직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고 각 사례별로 도표화하였음
-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에 관한 연구 관계에 바탕을 두어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적합한 자료들을 추려냄. 정리된 자료는 '매우 거대하고 풍부한 연구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자의 내러티브와 연구 퍼즐을 가지고 탐구의 자세로 되풀이하며 읽어 나가는 과정을 거침
- 질적 사례연구 진행 과정 및 절차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1-1] 질적 사례연구 진행 과정 및 절차



3. 연구 대상

1) 개요

- 연구표본, 연구참여자는 이번 당사자연구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과 함께 근무한 기업체(국내 대기업, 해당 산업 1위 기업 포지셔닝)의 동료 중 최근 5년 내 퇴직한 중장년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눈덩이 표집 과정 중 주요 표적을 설정하는 순차적 과정으로 진행됨
- 이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동일기업 근무 후 퇴직한 사례로, 현재 평균 연령은 56.3세이며, 평균 퇴직 연령은 51.7세로 기존 통계청 자료 중 남자 퇴직자 대비 약 0.4세 연장 근무하였음.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고연령 장기근속 근무자로서 기업 내 조기퇴직 권유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연구참여자로서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임
- 이번 연구 결과 비교 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취업경험자는 100%이며, 지인 소개를 통한 구직이 67%, 자격증 취득 및 민간 취업 알선의 경우가 33%임. 이 중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7%,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65

세임.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시점이 선정 사유의 주된 요인임

2) 선정기준

- 이번 연구 활동을 시작하며 최초 40여 건의 표본을 수집하였고, 이 중 당사자 연구에 부합하는 소프트랜딩 해당자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함
- 연구 대상은 연구당사자들과 함께 근무한 동일기업 내 동료 중 최근 5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로 선정함
-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표본선정기준은 서울시 50+당사자연구 등 기존 연구 사례에서 봐온 주로 퇴직 후의 커뮤니티와 지역을 통해서 만난 임의 표본과는 차이가 있음. 이번 연구표본 선정은 동일 산업, 동일기업체 내 근무 경력과 약 20여 년간 직장생활 이후 퇴직한 이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근거리에서 함께 근무한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력과 평판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므로 이력 추적과정에서 비교적 정밀한 요인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3) 대상자 현황

[표 1-2] 연구참여자 현황

성명	성별	현재 연령	퇴직 연령	소프트랜딩 기간	내용	지역
김강북	남	56세	50세	1년 5개월	유통관리직 → 자격증 취득 → 재취업(시설관리직)	서울
전대전	남	57세	51세	1년 6개월	유통관리직 → 취업준비 → 재취업(공공기관 단기계약직)	대전
이충남	남	57세	52세	9개월	유통관리직 → 취업준비 → 재취업(제조업 용역업체 관리직)	충남
조강남	남	56세	53세	10개월	유통관리직 → 취업준비 → 재취업(입시학원 생활지도 관리직)	서울
이일산	남	56세	50세	0개월	유통관리직 → 취업준비 → 재취업(유통업 영업관리직)	경기
박부산	남	55세	52세	10개월	유통관리직 → 창업준비 → 재취업(대출상담사)	부산
평균		56.3세	51.7세	11개월		

*연령은 만 나이 기준

*소프트랜딩 기간은 동일회사에서의 계약직 근무 기간 제외

4. 사전 질문지 구성

1) 질문지 개요

- 연구조사 선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프트랜딩 추적연구 인터뷰 질문 내용을 퇴직 관련 내용과 현재 일자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지를 구성함
- 질문지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주된 일자리 퇴직 관련, 재취업 준비, 현재 일자리, 미래 계획, 당부와 소감 등 총 5개 항목으로 정리함
- 주요 구성항목을 중심으로 각 질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대상자에게 세부

적인 질문 내용을 수차례 사전테스트를 통해 질문지를 재구성하였고, 최초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질문 내용과 다소 상이한 질문항목과 내용은 연구참여자를 거쳐 가면서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최종적인 질문지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구체 질문지 내용과 세부사항은 붙임 내 부록 참고)

2) 질문지 구성항목과 내용

[표 1-3] 연구참여자 질문지 구성항목과 질문 내용

구 분	질문내용
인적사항	• 성명/생년/나이
주된 일자리 퇴직 관련	• 직무별 경력/근무부서/직무/기간/최종직책(직급) • 주된 일자리(정규직) 퇴직 시점(연월) • 퇴직을 결정하게 된 이유(퇴직 수용 이유) • 정규직 퇴직을 예상하고 준비한 사항 유무
재취업 준비	• 퇴직 이후 현재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취업을 위해 준비(노력)했던 사항 • 취업한 경험(가교 일자리 등)이 있다면 성공 요인,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실패 요인 • 퇴직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도움(자원) 여부(정부나 지자체, 기타 사회적 지원 등) * 계약직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수령 기간 구분
현재 일자리	• 현재 일자리 업무 내용 • 현재 일자리를 구하게 된 동기와 구직활동 방법 • 취업 성공요인(능력/노력/인적 요소) • 퇴직 이후 구직활동 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 • 구직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정책적 지원책(도움) 제안
미래 계획	• 퇴직을 결정한 후 계획한 미래의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 → 만약 상이하다면, 그 이유와 사회적 지원요청 사항 •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은 나이 → 그 이유
당부/소감	• 퇴직예정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선 경험자 관점에서 해주고 싶은 조언 • 인터뷰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

* 세부내용은 붙임 부록 질문지 참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한국 사회 신중년 퇴직과 삶의 현황

1. 중장년 퇴직 현황

- 중고령자는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의 중년과 65세 미만의 고령을 합친 개념으로 중·고령층, 준고령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됨 (김기홍·임언·이정표, 2008). 이러한 중·고령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경제·사회적 자원의 확대를 경험함(안기선, 2011). 특히, 중·고령 세대 남성들은 일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일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동안 일 특성과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다양한 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함(조원지·한경혜, 2001)
- 김태현·김양호(2003)의 연구에서는 직업과 자녀가 있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가족생활 등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직장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중년남성들은 여전히 생계부양자의 역할에서 정체감을 찾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함
- 은퇴자의 은퇴 전 경험과 생활만족도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성미애·최새은(2010)의 연구는 남성과 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젠더에 따른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강조함. 즉, 은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며, 남성의 경우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을 여성보다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 즉, 개인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이 본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은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에게 은퇴는 중요한 생활 사건이며,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중년은 전 인생 주기에 대하여 그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중첩되며 자녀의 출가, 노부모의 노환, 별세 등의 생활 변동을 맞이하게 되는 동시에 신체적으로는 노화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대두됨(김명자, 1998). 중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신체적, 심리적, 가족 사회적 특징으로 나뉘며, 신체적 특징으로 중년기는 감각 운동 기능, 정신 운동 기능, 생식 기능, 성적 능력, 그리고 외모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권일진 외, 2020)
- 중년기 신체적 변화는 그 자체보다 그 충격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됨. 심리적 특징으로 중년기는 ‘나는 누구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누구를 위해 숨 가쁘게 중년의 문턱까지 달려왔는가?’, ‘과거에 세워놓은 목표들은 모두 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자기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시점.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신이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당혹감과 고통에 빠지기도 함(장은령, 2000)
- 인생의 전반부에 취해야 할 생각과 태도로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것은 부적당하며, 삶의 무의미감과 공허감이 찾아 들어 중년의 위기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 있음. 인간 발달단계에서 중년기에 해당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신경증의 영향을 갖게 되어 우울 성향이 높고, 비탄에 빠지게 되며, 인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함(김형섭 역, 2012)
-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년기는 삶의 의미에서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기임.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달성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가치에 관한 것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음(Frankl, 1967)

2. 사무직 퇴직자 삶의 현황

- 사무직 중년남성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선택한 직업은 자신이 좋아 해서라기보다 생계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선택한 것임. 이들은 퇴직 후에야 비로소 마음속의 진로소망에 이끌려서 낯선 길에 오를 수 있었음. 직업과 커리어를 바꾼다는 것은 힘들고 안내자도 없는 길이지만, 이들은 내적인 소리와 외부의 신호를 통합하면서 한 걸음씩 실천으로 확인하며 나아감. 그리고 길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여정의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점점 분명히 알게 됨

제2절 소프트랜딩 용어 정의

1. 사전적 정의

1) Soft landing

- In economics a soft landing is a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y stops growing but this does not produce a recession.
- 연착륙: 경기 후퇴, 실업 증가 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경제성장률을 내리는 일(출처: 슈프림 영한대사전)

2) 소프트랜딩 개념

- 경기 성장세가 꺾이지만 급격한 둔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함. 원래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착륙하거나 궤도에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임.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 증가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을 뜻함. 미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던 80년대 말, ‘어떻게 하면 다가올 불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해 전 세계에 퍼졌음. 자본주의는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 경기가 활황에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매출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위축, 결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거나 감원 등을 당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함.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반대로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경착륙(하드랜딩, Hard Landing)이라고 부름

3) 유사 정의 추출 및 개념(항공용어)

-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연착륙): 항공기가 1분당 100피트(30m)의 속도로 강하하여 착륙하는 경우, 달이나 행성에 탐사선이 완전히 속도를 줄여 사뿐히 착륙하는 경우, 경제위기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기 둔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경우 등에 쓰임
- 하드랜딩(Hard Landing): 갑작스러운 하강기류 등으로 항공기의 바퀴가 활주로 노면에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

2. 조작적 정의

- 중장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안착의 의미로 소프트랜딩의 개념을 적용함. 제2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장년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질문지 항목에 담아 질문하고, 당사자가 시도한 개인적 노력(어떤 과정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요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개인 노력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을 못 했지만, 재취업 성공을 위해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사회 제도적 요인도 포함)을 구분하여 파악해보고자 함(최초 소프트랜딩의 적용은 노동시장의 재취업 이외에도 사회관계, 봉사활동, 일거리 등을 포함하여 접근)
- 이번 연구에서 소프트랜딩의 조작적 정의는 최근 5년 이내 퇴사자 중 정규직 혹은 계약직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한 상태를 말함

제3장 사례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대상 특성

1. 공통적 특성

1) 근무 형태 - 동일업종 동일기업 20년 이상 근무

- 연구참여자들은 당사자연구 연구자들과 함께 근무한 기업체 동료로서 최소 2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지속 근무하였음
- 연구참여자들의 근무부서는 영업지원팀, 영업팀, 영업총괄팀 등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기업 내 사무직 중간관리자로 최종 근무함

2) 연령 - 실제 나이 및 퇴직 시점 50대

- 연구참여자 전원 현재 연령대가 50대 중후반이고, 동일기업 장기근속 경력으로 퇴직 시점 나이는 51.7세임([표 1-2] 연구참여자 현황 참고)

3)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회사 권고사직

- 연구참여자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50대 이상 고연령, 20년 이상의 장기근속 근무자로서 기업 내 조기퇴직 권유를 수용한 사례로 모두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음
- 회사 자체 퇴사기준에 대해서 연구당사자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연구참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퇴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과장직급 이상의 회사 중간관리자 간부계층
 -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 기업 내 성과평가 하위 고과 대상자
- 40대 후반 ~ 50대 초중반 고령자
- 회사 사규 위반 경력자

4) 희망퇴직제도 활용

- 계약직은 회사가 명예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명예퇴직 조건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주며, 1~2년간 회사에 근무토록 함. 명예퇴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위 보직을 임의 부여함.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우선 권유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으로 계약직을 수용한 사례들임. 단, 계약직 체결은 하더라도 해마다 출퇴근 조건 여부는 상이함
- 계약직 근로 조건 내용은 회사와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해지하되, 신규 계약을 통해 기존 연봉의 60% 정도를 달로 나누어 받음
- 계약직 기간 동안 출퇴근 근태관리는 하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크게 없었음.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기간에 희망퇴직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함

2. 차별적 특성

1) 재직 중 직무 내용 차이

- 연구참여자들은 동일기업에 함께 근무하되 개인별 직무 내용은 개인별로 상이함
- 연구참여자 6명 중 전대전, 이일산 2명은 기업 내 직무커리어로 주로 15년 이상 영업관리직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타 10여 년은 사원직 급으로 해당 직무 실무를 수행함. 김강복, 이충남, 조강남, 박부산 4명은 경영지원직무 관리자로서 이는 주로 기업의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관리직을 지원하는 업무임
- 영업관리직과 경영지원직 직무 구분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의 안착과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음. 이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경영지원직과 영

업관리직 모두 안착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직무 성격에 따른 퇴직 후 노동시장 재진입 안착요인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음.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제4장 결론 및 제언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2) 퇴직 후 생활거점 지역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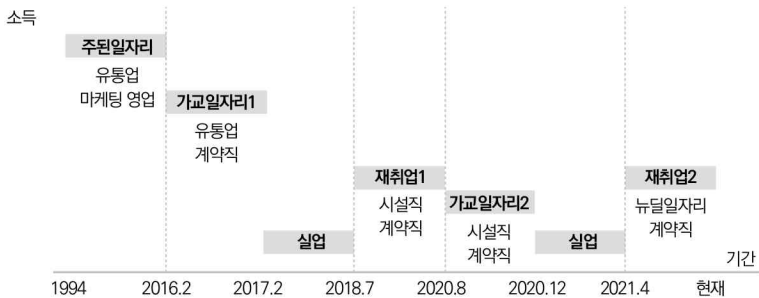
- 이번 연구참여자의 실거주 및 퇴직 후 삶의 주요 생활거점 지역은 상이함. 크게 구분하면 서울,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권역 3명과 부산충남 등 지방 권역 3명으로 구분됨. 구체적으로는 서울(김강북, 조강남), 경기(이일산), 대전(전대전), 충남(이충남), 부산(박부산)으로 개인별 주요 활동지역이 상이함. 이러한 지리적 권역별 거점지역의 차이가 노동시장 재진입 혹은 취업준비 기간에 지역별 차이 요인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조건을 제공함
- 실제로 서울권은 서울시 50+ 중장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음. 연구참여자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 김강북, 조강남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실적이 있으나, 지방 참여자들은 일부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 참여 외에는 별도로 없음
- 충남 및 부산권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질문지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중장년 취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거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정보제약과 한계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제2절 퇴직 및 재취업 사례(개인별)

1. 김강북, 전통시장 매니저

김강북은 1965년생으로 입사 이래 마케팅 10년, 경영지원 4년, 영업 8년 등 총 22년 근무하였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에 명퇴를 받아들였다. 회사의 사직권고와 회사생활에 대해 지겨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 또한 퇴직 후 금전적인 부분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다. 그렇지만 경쟁과 효율이 우선되는 바쁜 삶 속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였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퇴조건으로 회사와 1년간 계약직 체결을 했다. 출근은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 당장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생각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할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림 3-1] 연구대상자 김강북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그는 주원 일자리 경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다.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2018년 6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당시는 귀촌 생각이 있어서 여러 직종의 취업프로그램 중 귀촌 후에도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취업하기로 했다. 7월에 을지로입구역 패스트파이브 건물의 시설직으로 입사했다. 자격증이 있다 해도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입사가 쉽지는 않았다. 해당 건물이 리뉴얼 공사 중이어서 근무환경도 안 좋고 일도 많아져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곳이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입사했다. 리뉴얼 공사 중 계속 이직이 있었지만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버텨내어 2020년 8월 퇴사 시에는 그 회사 근무 경력이 제일 선임자이었다. 시설관리 업무가 3교대 근무라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전기기능사라는 직업도 일반 회사와 같이 틈이 없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공공일자리는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 도전하기로 했다.

다행히 2020년 9월 양천구 시니어클럽에 입사하게 되었다. 주택연금공사의 독거노인 집수리를 해주는 일이었다.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고 2021년 4월 다시 서울시 일자리 포털을 통해 중구청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었다. 우선 2021년 말까지 근무하게 되고 계약이 연장되면 1년 더 할 수 있다. 방산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방산시장 관계자 1명과 본인, 2명만 근무하고 있다. 시설직으로 근무할 때보다는 부담 없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70세가

지 일하고자 한다. 반드시 전일제 근무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3~4시간씩이라도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과거 경력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내 경력 중 주특기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등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없었고 알 수도 없어 답답했다. 과연 취업 기회가 있기는 한 건지,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등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 상황에 놓였다.

그는 퇴직예정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선 경험자 입장에서 몇 마디 조언한다.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 얘기에 휘둘리지 마라. 남 얘기에 휘둘리다 보면 피곤해진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이번 전통시장 매니저도 20번 이상 지원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원해서 취업한 것이다.”

이처럼 입사 도전을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한다.

2. 전대전, 공공기관 통계조사원

[그림 3-2] 연구대상자 전대전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전대전은 1964년생으로 2015년 2월 말 명예퇴하였다. 그는 1990년 1월 대기업인 종합 식품업체에 입사하여 마케팅, 광고, 홍보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1년 6월에 계열사 유통업체로 이동하였다. 주로 식품과 가정팀에서 영업 팀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초 명예퇴 통보를 받고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웠

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회사가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게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는 하지만 2년간 출퇴근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로 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다행히 퇴사 직전 근무했던 연고 지역 점포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맞벌이는 아니지만, 일부 임대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았다. 가족들도 이해하고 환영했다. 그는 계약직 근무 기간을 잘 활용하였다. 이 기간에 자격증을 준비해서 현재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현재의 일을 하기 전까지 구두 판매 3개월, 생활용품 판매 총괄 3개월, 1주일 근무한 축산업체 등의 가교 일자리가 있었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자리 찾는 기준을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 급여와 근무환경을 중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급여는 작더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가교 일자리는 눈높이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6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 워크넷(m.work.go.kr)을 매일 접속했다. 본인 적성에 맞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마침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원(3개월)을 모집하고 있어서 지원했다. 통계를 위한 관내 회사들의 자료를 조사하는 업무였다. 2대 1의 경쟁률로 면접을 보았고 경력자 우대임에도 경력도 없이 합격한 것을 좋아했다. 이유를 물었다. 추론하기에 면접 시 직장 경험이 있다 보니 정답에 제일 가까운 대답을 한 것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억나는 질문은 ‘파견직과 용역직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아 내겠습니까?’였다.

5명이 함께 면접을 보았다. 그에게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실무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물론 실무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지원자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명퇴 통보를 받고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것이다. 직업상담 업무는 아니었지만 유용하게 쓰여서 보람을 느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지금까지 통계조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다. 마음도 편하고 이제야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3개월 연장도 가능하고 1년 내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급여는 많지 않다. 이제는 많고 적고가 문제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가깝고 오전 9시, 오후 6시에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좋다. 다니면서 여러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기관에서 하는 통계조사원 업무도 많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원(총선, 대선, 조합장 선거 등), 산림청의 산림조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원 등 시기에 맞게 잘

맞추면 큰 공백 기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 통계조사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다.”

그는 지금 하는 일을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들어보니 동료 중에 64세 남성도 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는 현재 일에 무기계약직 전환도 꿈꾼다.

그는 현재의 일자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찾았다. 그가 조언한다.

“시간이 많다고 그냥 지낼 일이 아니다. 움직이면 뭔가 할 일이 생긴다. 위크넷 등 각종 사이트에 올라온 일들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연관된 다른 일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불러 주겠는가? 스스로 찾아보고, 만나보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선배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라. 실업 급여 받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그 지인들 덕분에 여러 일터를 알아보고 취업도 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더라도 찾아가 만나면 여러 취업 사례들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간접경험이 된다. 계획적으로 주별 계획을 세워 전화하고 있다.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3. 이충남, 공기업 경영지원 관리자

[그림 3-3] 연구대상자 이충남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이충남은 1964년생으로 2014년 4월에 명퇴 통보를 받았다. 2년간 동일회사 동일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16년 4월에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89년 대기업인 H사에 입사하여 줄곧 인사노무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IMF 여파로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서 2001년도에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인사노무 경력으로 경영지원파트(인사/노무/총무/4대 영역관리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명퇴 직전 1년은 영업팀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근무 기간 지방 중소 유통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 발생 현장에서 5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퇴사 후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족에게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겠다’라고 하니, ‘그동안 수고했어!’라는 격려에 힘이 생겼다. 만 50세에 명퇴 통보는 충격이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로 하고 퇴사 결정을 했다.

그는 2년간의 계약직 근무 기간 주로 독서, 교양 상식 함양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 계약직 종료 후 아파트 관리소장에 도전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선택했다. 사무관리직으로 지원부서에서 근무했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막상 시작해 보니 분량도 많고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2016년 4월 계약직 근무도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재충전시간으로 쉬면서 전국 유명한 산 등산을 다녔다. 이후 기간에는 노동부주관 주택관리사 양성과정 3개월 무료 강좌를 수강하였다. 그러나 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날 무렵 2016년 11월에 취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직장 근무 시 알게 되었던 용역업체 회장으로부터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수락하였다. 마침 업무 경험도 있고 살고 있는 연고 지역이었다. 두 번째 회사에서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그때 알게 된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가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다시 바쁜 일상을 갖게 되었다. 바쁜 생활 속에 몸이 아파 결국 2018년 3월 그만두었다. 일단 수술 후 요양을 하며 건강 회복에 주력하였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준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였다. 졸업한 대학을 찾아가 동문 기업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업무 경력이 필요한 곳에 찾아다녔다. 다행히 학과 선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노사관계에 정통한 관리자를 뽑고 있었다. 학연으로

인연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강조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강성노조 관리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최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다. 본인의 경력과 경험에 적합한 구인공고가 있는지 여러 취업포털에서 검색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다양한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 마침 적합한 회사가 들어왔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일하는 용역업체인데 경영지원실장을 뽑고 있었다. 시설/경비/청소/소방/방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였다. 유통업체 근무 시 10년 넘는 경영지원관리 경력과 노무/노사 관련 전문가로서의 업무 경험이 적중했던 것 같다. 2018년 11월에 취업이 되었다. 취업한 회사가 2019년 4월에 한국서부발전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뀌었다. 회사가 바뀌에 따라 직영사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고 올해 4월에 다시 재계약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 인생 2막 기간이지만 아직도 인생 1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엄청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행복한 추억을 했다.

그는 현재 다니는 직장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 후면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이다. 이후에는 노사/노무 관련 업무가 있어야 하는 중소기업체에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설 것이다. 돈보다는 나를 원하면 도와줄 것이다. 출퇴근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시간에 나가서 자문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강의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부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앞으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 것이다. 웰다잉 관련 강사로 나서 볼 예정이다.”

그의 노후계획은 확고하다. 그는 현재 주된 일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더 바쁘다고 한다.

“경제적인 부담에 쫓기지 말고 자신의 업무 전공 분야를 공부해라. 업무 경력만으로는 안 되더라. 중소기업체 관리자로 가니 직접 처리해야 할 실무가 많았다. 1년이 다르게 경영환경이 바뀌고, 실무담당자부터 대표까지 일인다역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었다. 실업률이 높다. 정부에서 중장년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운영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구직/구인 활동은 좋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 언제 부분이 매우 아쉽다. 따라서 개인들은 앉아서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 직접 발로 뛰며 찾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적합한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조강남, 입시학원 생활 관리자

[그림 3-4] 연구대상자 조강남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조강남은 1965년생으로 2018년 2월 말에 명예퇴하였다. 그는 군대를 장교로 전역하고, 곧바로 1990년 대기업 제조업체에 입사하였다. 교육인사 업무를 하다가 IMF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2000년에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8년간의 교육직무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직 관리자를 모집하는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로 교육, 경영지원(인사, 노무, 총무, 4대 용역관리), 고객센터 부서에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명예퇴직 전 3년간 영업팀장을 하기도 했다. 사무관리직으로 직장 내 성장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2018년에는 명예퇴 조건이었던 1년 계약직도 전년과 다르게 출근하지 않게 하였다. 그는 갑자기 출퇴근에 대한 완충 기간이 없어져 버려 매우 당혹스러워 퇴사 결정에 갈등을 많이 했다. 앞서 퇴직한 선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출퇴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2 인생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예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행히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생활 경제면에는 부담이 크게 없었으나, 일하는 부인에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많은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으나, 결국 가족들에게 전달하니 수고했다며 쉬면서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1년간 급여가 있다는 위로를 받으며 나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시도해본 실험적인 삶을 살아볼 기회가 되었다.

회사와의 1년 계약직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수령액은 계약직 때보다 반도 안 되었지만, 2019년 11월까지의 준 급여생활자가 되었으며, 그래도 힘이 되었다.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 사이트와 잡코리아, 사람인 구직사이트에 가입하였다. 처음에는 의무 구직활동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실업급여가 끝나갈 때가 되니 취업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 9월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 100곳을 지원해 보자고 마음먹고 취업사이트를 뒤져가며 지원서를 냈다. 그러나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막연하게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조금 부족해서 안 오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원한 회사 채용담당자와 통화해서 채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그렇다고 단순노무직, 기간제 업무를 찾기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횟수가 거듭되면서 눈높이도 낮아졌다.

2019년 11월 고등학교 3학년 막내가 재수하기로 했다. 여러 재수학원을 검색하는 와중에 학원에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들이 보였다. 아들도 재수하니 아빠도 함께 재수 생활을 한다는 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수학원 여러 곳을 지원했다. 그 중에 다행히 인근 지역 거주자이면서 50대를 뽑는 곳이 있었다. 46번째 지원서였다. 대기업에서의 조직 생활, 특히 교육연수 분야에서의 근무경험, 인성·예절 관련 자격증(올바른 인성), 장교 출신 등의 경력과 경험은 충분했고, 50대 중반에 인근 거주자의 자격에 부합하여 드디어 연락이 왔다. 실질적 급여 수준은 낮더라도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이니 가치 있게 느껴졌다. 면접을 보고 합격해 2020년도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년도에도 재계약을 해서 다니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일하고 있어서 지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업무 강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에 스트레스도 없고 집에서 가까워 재미있게 다니고 있다. 아들 재수는 끝났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 만큼 여기에서 좀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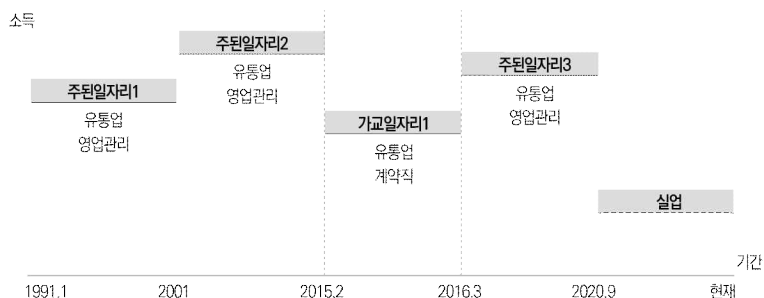
그는 맞벌이 중이다. 먼저 퇴직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일을 아내가 퇴직하는 날까지 하고자 한다. 앞으로 3~4년 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해외 유람을 다녀오는 것이 꿈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30년 넘게 일하고 2녀 1남을 키운 수고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고자 한다.

그가 선 경험자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거의 없고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퇴직해도 할 일은 많다. 희망소득은 낮아지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울러, 자신의 직장생활 업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자료화해 놓아라. 기왕이면 퇴직 전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아라. 재취업 이력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업무와 연계하여 퇴직 후 진출 가능한 일과 관련되거나,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놓아라. 제2 인생에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5. 이일산, 유통업 영업관리자

[그림 3-5] 연구대상자 이일산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이일산은 1965년생으로 2015년 2월 말 명예퇴직하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1년 초 중견유통업체에 입사하여 3년간 기획팀에서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다. 그 이후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다가 IMF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2001년에 첫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영업관리 업무 경력으로 이직한 업체에서도 줄곧 영업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장경력 총 24년 중 영업직으로만 21년간 일했다.

그는 2015년 초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현재 직급보다 하위직으로 강등 이동할 것인지의 선택을 고민하다가 집에서 가깝고 근거리 통근이 가능한 지점으로 2년간 계약직 근무조건을 수용하였다. 만족 여부를 떠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충격과 경제적 불편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계약직은 일정급 여를 받으며 출퇴근은 하지만 업무 수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퇴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퇴직 후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찾아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직 근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절이라 할 수 있는 첫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다시 입사할 수 있느냐고 요청이 들어 왔다. 신입사원 시절에 만난 직장 선배였다.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다 보니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그러나 그때는 새로운 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계약직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이 시점에서 퇴직하면 2년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마침 첫 회사에서 계속 재입사를 원하고 있어서 계약직 퇴사를 수용하였다. 2016년 3월 실업기간 없이 바로 이직하였다. 주된 일자리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유통업체가 너무나 어려웠다. 2020년 가을, 그는 다시 한 번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 영업 실적에 대한 책임이 무거웠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크게 없다. 이제는 자녀도 든든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다. 무슨 일을 할지 천천히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고향의 친인척도 찾아보고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있다. 아직은 여유를 갖고자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격언을 떠올렸다. 제대로 된 일을 찾고자 한다.

취업보다는 전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며 생각했던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나이도 있어서 취업할 생각은 없다.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인으로부터 제주도에서 개발 중인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사양했다. 아직 분양 중이었고 상권 형성까지 너무 멀어 보였다. 무엇보다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여전히 그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듯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과제빵점과 당구장은 지금도 창업 1순위로 생각 중이다.

그는 재취업의 원동력을 말한다.

“직장생활하며 맺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맺은 관계가 나를 끌어준 것이다. 쇼핑몰을 맡아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또 하나는 회사를 바꾸면서 동일업종에 동일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주된 경력과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모두가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해당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등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라.”

6. 박부산, 대출상담사

[그림 3-6] 연구대상자 박부산 커리어 내역(기간별 내용과 소득)



박부산은 1966년생으로 입사 후 바이어 2년, 경영지원 3년, 영업관리 20년으로 총 25년 근무하였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2월에 명퇴 통보를 받고 퇴사를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화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명퇴를 수용하지 않으면 낮은 보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맘에 들지 않았다. 경매 컨설턴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누나와의 상담에서 용기를 얻었다. 누나는 “할 일이 없겠냐.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 몇 달 쉬다가 같이 하자”고 했다. 직장생활 하는 아내도 쉬면서 할 일을 천천히 찾아보라고 했다. 힘이 되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제2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명퇴 조건으로 주어지는 회사와의 1년간 계약직 근무를 체결하였다. 다행히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단 피폐해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딱히 계획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상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았다.

2018년 2월 퇴사 후 처음부터 대출상담사 업무를 시작했다. 아픈 몸도 추스르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5월부터 경매 컨설턴트인 누나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누나 권유로 대출상담사 업무를 배워보기로 하였다.

대출상담사는 경매, 공매, 일반 매매 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현재 4년 차, 만 3년을 넘게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 타인에게 명함을 돌리며 대출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너무나 생소하고 창피했다. 계약직 근무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있어서 스스로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당연히 실적은 거의 없었고 누나에게 용돈을 받는 정도였다. 지금은 월평균 3백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취업한 주변 동료들보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까지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원서를 낸 곳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경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나이 때문인 것 같았다. 의류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지만, 기업평판도 조사를 해보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먼저, 정년 없이 지속해서 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는 활용 가능한 내 시간이 많다, 오전에 법원에 가서 대면 대출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전화 상담 등 업무를 한다. 주말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 직장에 비하면 근무시간도 훨씬 적고 업무강도도 매우 낮다. 셋째는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니 실적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처음에는 실적과 수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지금은 그동안 상품개발을 많이 했고 유통업에서 다져진 친절성으로 고객이 지속해서 창출되고 있다.”

그는 이 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격언을 인용하여 수입에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한다. ‘활황인 소장에서든 돈을 벌고, 불황인 곰장에서든 돈을 번다. 돼지(욕심만 많은 사람)는 돈을 못 번다.’

박부산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만 현재의 일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하고 있는 대출상담사는 정년 없이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여유롭게 여행하며 살고자 한다.

그는 퇴직예정자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자격증을 취득해라. 기왕이면 현역으로 있을 때 취득해 놓으면 훨씬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공부해라. 나도 50세를 바라보면서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 했으나, 일에 밀려 준비하지 못했다. 너무 아쉽다. 둘째

는 회사를 믿지 마라. 직장생활이 전부가 아니더라. 퇴사해 보니 얼마든지 대안은 있더라. 셋째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이다. 퇴직하고 수입이 없을 때 아내에게 미안했다. 아내는 지금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나도 벌고 있으니 괜찮다. 가족의 응원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

퇴사 후 재취업에 도전하면서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다. 그는 한마디 덧붙인다.

“청년창업, 청년 통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청년과 여성에 관한 지원책은 많이 들어봤다. 노년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30~40대는 경력직으로 재취업하면 된다. 50대가 문제다. 재취업도 안 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준비해 놓지 못한 본인 책임으로 느껴진다. 직장경력의 단절은 곧바로 소득 절벽이 된다. 50+세대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 벌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는가?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받고 싶다.”

제3절 소프트랜딩 요인별 사례

1. 개인적 요인

1) 명확한 구직 동기 및 적극적 활동

김강복은 주된 일자리 경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다.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2018년 6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몸을 쓰기 때문에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여 기술직을 선택했다. 그 당시는 귀촌 생각이 있어서 여러 직종의 취업프로그램 중 귀촌 후에도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었다.

전대전은 현재의 일을 하기 전까지 구두 판매 3개월, 생활용품 판매 총괄 3개월, 1주일 근무한 축산업체 등의 가교 일자리가 있었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자리 찾는 기준을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 급여와 근무환경을 중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급여는 적더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가교 일자리는 눈높이를 낮추는 계기가 되

었다. 2018년 6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매일 접속했다. 본인 적성에 맞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마침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원(3개월)을 모집하고 있어서 지원했다.

조강남은 2019년 11월 고등학교 3학년 막내가 재수하기로 했다. 여러 재수학원을 검색하는 와중에 학원에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들이 보였다. 아들도 재수하니 아빠도 함께 재수 생활을 한다는 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수학원 여러 곳을 지원했다. 그 중에 다행히 인근 지역 거주자이면서 50대를 뽑는 곳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 등 구직요인이 있으나, 상기 3명은 좀 더 뚜렷한 구직 동기가 있다. 김강복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주된 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기술직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직을 했다. 전대전은 거둬들인 취업 실패 속에서 본인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 조강남은 아들 재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학원 관련 일자리를 얻었다.

2) 직무경력 활용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의무 구직활동이지만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취업 지원을 했다. 그러나 연락 온 곳은 없었다. 나이나 경력이 채용조건에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날 무렵 취업전략을 다시 세웠다.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전공과 업무 경력 및 관리자 이상의 직책을 세세히 맞추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노무 관계 업무와 그 경험을 세세하게 정리하였고, 본부장, 실장급 이상의 직책을 채용하는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다.”(이충남)

이충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결과가 그의 현재 일자리다. 주된 일자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이일산도 주된 일자리 퇴사 후 지인을 통해 재취업을 했다. 유통업 회사에서 20년 넘게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된 일자리의 연장선 대우를 받았다.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은퇴자가 재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30년간 쌓아온 본인의 직무경력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 중 경력 위주의 일자리를 구한 사례는 이충남과 이일산에게서 볼 수 있고, 주된 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한 사람은 김강복과 박부산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전대전과 조강남의 사례에서는 경력과 타 요인의 작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내용이 앞 제2절 사례조사 소개 시 중복되므로 이충남의 경력 관련 인터뷰만 간략하게 정리했다.

3) 자격증 취득 활동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과천 농부학교에 다녔다. 그 당시는 귀촌할 생각도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나갔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활동이 귀찮아지고 있을 때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기술을 배워두면 늦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직종의 취업프로그램 중 귀촌 후에도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평소 기술직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몸 쓰는 일 중에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김강복)

김강복은 2017년 7월부터 고용센터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았다. 2018년 3월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 6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계약직 근무 2년간 매월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출근은 하나 주어진 업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다. 몇 달 지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취업도 쉽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리고 취득했다. 특별히 뜻이 있었기보다는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다.”(전대전)

전대전은 회사 내에서 선후배를 마주칠 때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강제퇴직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했다. 명퇴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선후배를 보면 수용하지 말고 계속 회사에서 일하라고 말했다.

“2년간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20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을 때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밖에 없었다. 재취업하기도 어렵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특히, 50대 퇴직자는 더욱 그렇다.”(전대전)

그는 먼저 퇴사한 경험자 이야기라며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조강남은 1년간의 계약직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글쓰기 수업, 취미 삼아 계속 해왔던 서예 실기 수업, 요리 수업 등등.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 OB

모임과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모임, 군대 동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친구들도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듣고 알게 되어 관심 갖게 된 대한검정회 한자/한문 교육, 성균관 인성/예절/문묘 해설 강사 양성 교육 등을 이수하고 한자 급수 2급,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1급, 인성지도사, 인성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뜻도 있었다.

이일산은 2년의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거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제빵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아울러 시간 나는 대로 제빵/제과점을 창업할 목적으로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권분석을 했다. 빵 냄새도 좋고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일하고 빵도 좋은 기부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창업 항목으로 당구장도 생각하고 동시에 상권분석을 하고 다녔다. 더불어 자격증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도 했다. 자격증을 취득해 아파트 관리소장 취업을 생각하며 시작하였으나 취득은 못 했다. 아쉬웠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계약직 1년이 지날 무렵 주된 일자리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재취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일산)

박부산은 계약직 근무 처음 두 달은 아무 생각 없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퇴사 무렵 원인 모를 화병이 발생하여 입원까지 했었기 때문이다. 회복되면서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5월부터 경매 컨설턴트로 일하는 누나 사무실로 출근했다. 대출상당사 업무를 배워보기로 하였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취업 시도를 해보았지만 어려웠다. 그러면서 대출상당사 경력이 쌓이고 수입도 올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을 알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회사 다니면서 자기계발 차원에서 취득해 놓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주된 일자리를 은퇴한 대부분은 자격증 취득을 한 번쯤 고려할 것이다. 단지 실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강복과 전대전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김강복은 주된 일자리에서 수행했던 직무와는 전혀 다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연관된 일자

리에 취업하였다. 조강남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일산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취업과 연계하지는 못했다. 박부산은 현재 일자리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2. 사회적 요인

1) 가족의 심적, 경제적 지원

“맞벌이는 아니지만, 일부 임대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크게 부담은 없었다. 가족들도 이해하고 환영했다. 계약직 근무 기간을 잘 활용하였고 그 기간에 자격증을 준비해서 현재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전대진)

“가족에게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겠다고 말하니, ‘그 동안 수고했어!’라는 격려를 받았고 힘이 생겼다. 만 50세에 권고사직 통보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로 하고 퇴사 결정을 했다.”(이충남)

“다행히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생활 경제면에는 부담이 크게 없었으나 일하는 부인에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었다.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으나, 결국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 수고했다며 쉬면서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라는 말과, 그래도 1년간 급여가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계약직 동안 나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시도해 본 시험적인 삶을 살아볼 기회가 되었다.”(조강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이다. 퇴직하고 난 다음 경제적 수입이 없을 때 아내에게 미안했다. 그동안 맞벌이해 온 아내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제는 나도 벌고 있으니 괜찮다. 가족의 응원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박부산)

연구참가자들 대부분 처음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개인적인 충격을 받았다. 혼자만의 고민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진정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이후 용기 내어 가족들에게 사실을 전하고 나니 가족들의 반응은 ‘수고했어요’, ‘당분간 편히 쉬면서 할 일을 찾아보세요’ 등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은 심적 부담감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 인적 네트워크 활용

(1) 전대전 사례

그는 계약직 근무 기간이 종료된 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했다. 구직 대표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사람인(www.saramin.co.kr)에 이력서를 등재했다. 백화점 영업관리와 고객센터 업무로 주로 했던 그였지만, 50대로서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연락이 온 일들은 보험 영업, 급여가 낮은 일, 지원금도 없이 영업 후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017년 말 실업급여가 종료됨에 따라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동안 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 마침 구두 판매를 지인이 함께하자고 제안해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해가 바뀌고 2018년 3월 초 판매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영업현장에서 영업관리자로 10여 년 넘게 일했지만 직접 판매 업무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판매현장에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수많은 판매 권유에도 사지 않는 고객들. 고객이 있을 때는 바빠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었다. 판매하는 직원들 고충을 이제 알았다.

이번에도 또 다른 지인 소개로 가정생활용품 판매회사에 영업관리자로 취업을 했다. 연봉은 적지만 소정의 영업활동비가 지원되어 출근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판매 활로를 개척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실적이 없어서 3달 하고 그만뒀다. 작은 회사에서 실적도 없이 급여 받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만둔 것은 지인으로부터 일자리 주선이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활용품 판매업체를 그만두고 바로 축산업 가공업체에 들어갔다. 구두 판매를 같이했던 지인이 소개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7일 만에 퇴사했다. 축산업이다 보니 지방 산속에 있어 주말 부부를 해야 했고, 또한 퇴근 시간 없이 일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업무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 근무환경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히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그의 말이다.

“직장생활하느라고 만나지 못했던 선배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라. 실업급여

여 받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그 지인들 덕분에 여러 일터를 알아보고 취업도 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더라도 찾아가 만나면 여러 취업 사례들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간접경험이 된다. 계획적으로 주별 계획을 세워 전화하고 있다.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2) 이충남 사례

다행히 실업급여가 끝날 무렵 2016년 11월에 취업이 되었다. 직장 근무 시 알게 되었던 용역업체 회장으로부터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수락하였다. 마침 업무 경험도 있고, 사는 연고 지역이었다. 두 번째 회사에서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그때 알게 된 용역업체 관계자들과의 좋은 관계가 취업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바쁜 생활 속에 몸이 아파 2018년 3월 그만두었다. 일단 수술 후 요양을 하며 건강 회복에 주력하였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준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였다. 졸업한 대학을 찾아가 동문 기업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업무 경력이 필요한 곳에 찾아다녔다. 다행히 학과 선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노사관계에 정통한 관리자를 뵈고 있었다. 학연으로 인연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강조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강성노조 관리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두었다. 비록 그만두었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볼 수 있다.

(3) 이일산 사례

나름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첫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다시 입사할 수 있느냐고 요청이 들어 왔다. 그러나 그때는 새로운 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계약직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이 시점에서 퇴직하면 2년 계약 기간 중 잔여기간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마침 첫 회사에서 계속 재입사를 원하고 있어서 계약직 퇴사를 수용하였다. 비록 만 50세에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지만 주된 일자리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계약직 근무 동안 취업하려는 동료들을 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첫 회사에서 모셨던 상사가 경영진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니 불려 준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재채용이 되었다. 물론, 영업직으로 주된 업무 경력을 쌓았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명퇴 권고를

받았을 때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혼란스러웠지만, 같은 처지의 선후배들과 비교해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결국, 첫 직장에서 만난 선배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주된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하게 했다.

(4) 박부산 사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박부산은 경매 컨설턴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누나의 힘이 컸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누나에게 명퇴 통고를 받고 찾아가 상담을 했다. 누나는 “할 일이 없겠냐.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 몇 달 쉬다가 같이 하자”고 했다. 결국, 두 달 집에 있다가 누나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취업을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대출상당사 업무를 하고 있다. 경력이 쌓이면서 수입도 늘고 정년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인다. 그는 누나를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은 것이다.

(5) 조강남 사례

조강남은 2018년 2월 말 퇴사를 하고, 일단 1년간 계약직을 체결했다. 그나마 아직은 소속이 있고 급여생활자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막상 출근하지 않으면 종일 집에 있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는 우선 지인들과 통화하고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러 다녔다. 퇴사했다 하니, 대부분이 쉬면서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추천해 주었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쏟아졌다.

‘생각을 바꾸어 관심 있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기가 쉽다(전기 기능사, 용접/타일/도배/원예 관련 자격증 등).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니, 공인 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해라.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서예 공부, 서예 작품전 출품, 서예 강사, 한자 한문 공부- 방과 후 선생님, 글쓰기, 책 출간하기 등). 교육부서 근무 및 사내강사도 했으니 인성/웰다잉 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를 하라’ 등등의 조언을 들었다. 농촌이 고향이니 귀농프로그램을 신청, 이수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눈높이를 낮추고 인맥을 살려 지인을 만나면 취업을 부탁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통업에 있었으니, 유통 일을 같이 해보자는 지인도 있었고, 자동차판매업을 등록하고 자동차 세일즈를 하거나 소자본 자동세차장을 운영해 보라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여행을 다녀보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일 수도 있다며 여행을 추천했고, 어떤 이는 현실적으로 취업사이트에 등록해서 찾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직장생활로 못 만났던 지인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복구하였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듣고 알게 되어 관심 두게 된 대한검정회 한자/한문 교육, 성균관 인성/예절/문묘 해설 강사 양성 교육, 강남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전자책 쓰기 수강과 전자책 공동출판 5권 참여, 성북구 50플러스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수강 및 어머니 자서전 출판, 서울시50플러스 서부 캠퍼스 교육수강 및 커뮤니티 활동,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의 참사람지도사 교육 등 해가 바뀌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관심 있는 분야로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아 진행된 일이었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지인들의 추천으로 재취업이 이루어졌다. 전대전과 이충남은 지인을 통해 가교 일자리를 추천받았고, 이일산은 주된 일자리에 스카우트되었다. 박부산은 지인의 일을 배워 현재 일자리가 되었으며, 조강남은 지인으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추천받아 수료하였다.

3) 사회참여 활동과 학습

(1) 김강복 사례

“명퇴 조건으로 회사와 1년간 계약직 체결을 했다.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받았다. 당장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서 한겨레에서 하는 ‘느린 삶 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온종일 6개월 정도 다녔다. 느린 삶 학교가 지향하는 ‘느린 삶’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가리킨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고 그저 사회 속에 휩쓸려 살아가기 쉽다. 느린 삶 학교는 이 속도의 시대에 세계적 생태주의 운동인 ‘퍼머컬처’(영속 농업) 사상을 토대로 ‘자신’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고민한다. 호주 생태 마을을 다녀온 강사의 생태농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삶에 관해 공부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 파천 농부학교를 또 6개월 정도 다녔다.”

(2) 조강남 사례

“2018년 10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를 처음 알게 되었다. 관심 가질만한 교육이 있으니 수강해 보라고 했다.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티 지원제도를 알았다. 교육수강 동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2019년에는 3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커뮤니티마다 회장, 총무, 회원으로 역할을 다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소득을 올리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영

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통해 서울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도 수개월 동안 참여했다.”

그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지원되는 일들도 수개월로 단기간 일들이었다. 결국 그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찾아 현재 일자리에 재취업한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볼 때, 공부는 대부분 자격증 공부를 말한다. 앞의 제3절 1-3) 자격증 취득 활동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외로 이층남은 계약직 근무 기간 주로 독서를 통해 교양 상식 함양으로 시간을 보냈다. 김강복은 명퇴 당시 귀촌을 생각하고 있어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

본 연구가 50+ 은퇴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해진 연구 기간 내에 사회참여 활동 관련 사례가 우선 되지 못했다. 조사 내용 중에서는 조강남 사례에서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전 계약직과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이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현재 일자리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다.

3. 지역적 요인

1) 수도권 지역 정보 접근성 우위

“계약직 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 성격의 급여를 받았다. 당장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서 한겨레에서 하는 ‘느린 삶 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온종일 6개월 정도 다녔다. 호주 생태 마을을 다녀온 강사의 생태농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삶에 관해 공부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 과천 농부학교를 또 6개월 정도 다녔다.”(김강복)

“2018년 10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를 처음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티 지원제도를 알았다. 교육수강 동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2019년에는 3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커뮤니티마다 회장, 총무, 회원으로 역할을 다했다.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통해 서울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도 수개월 동안 참여했다.”(조강남)

연구참여자 중 지방 거주자와는 달리 수도권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교육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하였다.

2) 재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박부산은 퇴사 후 재취업에 도전하면서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한마디 덧붙인다.

“청년창업, 청년통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청년과 여성에 관한 지원책은 많이 들어왔다. 노년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30~40대는 경력직으로 재취업하면 된다. 50대가 문제다. 재취업도 안 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준비해 놓지 못한 본인 책임으로 느껴진다. 직장경력의 단절은 곧바로 소득 절벽이 된다. 50+세대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 벌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는가?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받고 싶다.”(박부산)

“2017년 7월부터 고용센터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았다. 2018년 3월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 6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김강복)

연구참여자 중 지방 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의 재취업 지원제도를 안내받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학습하였으나, 서울권 거주자는 재취업 지원제도의 직업훈련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격증 취득의 결과까지 얻게 되었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론

- 이번 당사자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활동을 마치며 100세 시대 우리 중장년들의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를 갖게 됨
- 50+당사자연구 사업 지원 동기와 같이 기 퇴직자 대상 퇴직 후의 삶의 경험을 질문을 통해 조사함. 그 과정에서 중장년 표본인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퇴직 후의 삶의 궤적, 일과 관련된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대한 안착요인과 그에 따른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제도 지원 여부를 연구함.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 향후 퇴직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퇴직 후 안전하고 만족한 생활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임무를 수행해 보고자 하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한 연구 활동임
- 최근 고용환경 불안으로 50세 전후의 퇴직 퇴사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가운데, 연구 당사자와 연구참여자 역시 선 경험한 입장에서 명예퇴직 통보와 더불어 경험한 난감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지만, 같은 직장 동료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여 더욱 안착하는 사례들을 심층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함
- 더불어 이번 연구 활동을 계기로 다양한 퇴직 중장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을 듣고 정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연구참여자 본인들도 미래의 삶의 방향과 좌표도 잘 정리될 것으로 판단함
- 체계적 연구 추진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접근, 질문지 구성과 인터뷰, 이메일과 전화 등 도구를 활용하였고, 부족하거나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차 3차 구두 면담을 거쳤고, 문헌 조사와 전문

가 코칭 과정을 통해 부족한 연구 과정을 보완함

- 질문지 기반 인터뷰를 통해 개개인의 평생경력, 삶의 지향점, 최근 퇴직 전후의 생활내용, 방식, 관계 형성, 새로운 도전과 실패, 느낀 점, 개선보완점 등을 알게 됨. 이번 연구참여자들의 정책적 제안을 정리해보며, 당사자연구 이후 50+ 중장년 퇴직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향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추진함
- 동일기업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유사한 시기에 퇴직하였다는 유사한 조건을 기반으로 퇴직 이후의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개인의 삶과 경험에 대해 사전에 설계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면접하며 수렴한 정책적 제안은 개인별로 다른 점도 있음. 하지만 전반적인 시사점은 전체 인구 구성비가 더욱 커지는 중장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임을 확인함
-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퇴직 이후의 삶의 방향과 진로설계 과정에 있어서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음 경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함. 주 거주지역별로 차이도 있었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로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의 기회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지만, 기타 권역의 연구대상자들은 해당 정보를 잘 모르거나 하물며 이번 당사자연구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알게 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확인함
- 무엇보다도 중장년의 제2 인생을 설계하고 새 출발한다는 점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이자 미래에 더욱 가속화되는 중장기적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정부 정책적 개선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
- 이번 연구 결과는 50+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소프트랜딩(안착) 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음
 - 개인적 요인
 - ① 일자리를 갖게 된 뚜렷한 동기
 - ② 직장생활 경력과 경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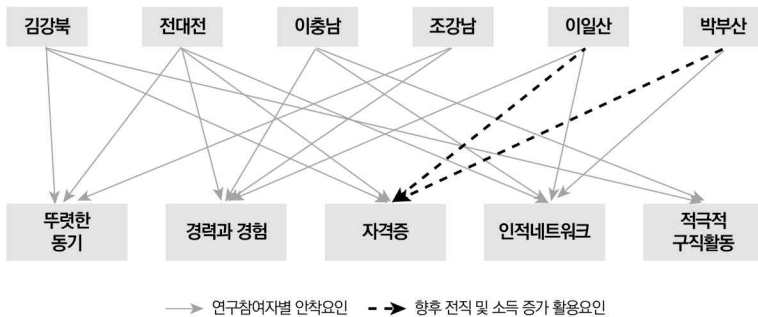
- ③ 자격증 취득 활동
- ④ 적극적 구직 활동
- 사회적 요인
 - ① 가족의 지원
 - ②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
 - ③ 고용보험센터 구직활동 시스템
 - ④ 잘 갖춰진 취업포털 시스템
- 지역적 요인
 - ① 지역적 정보 비대칭성과 편향성
 - ② 재취업 지원제도의 활용 등이 분석됨
- 위와 같은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당사자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관계기관
 - 장기간(복수 연도 이상)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확대
 - 50+세대 퇴직자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 재정립과 홍보 확대
 - 50+세대 실업급여 신청 시 의무교육 별도 진행
 -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및 적극적 홍보
 -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 이외 취업 일자리 적극 알선
 -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지자체
 -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체 대상 금전적 보상제도 확대 및 다양화
 - 50+세대 지원 기관의 지역별 설치 확대
- 기업
 - 기업체 중장년고용 캠페인 확대 차원에서 기업체 퇴직 프로그램 내 50+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책자 배포
 - 퇴직자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확대

- 개인

- 퇴직 전 준비사항 체크 및 직장생활 개인 이력과 직무기술서 정리, 자격증 취득, IT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 등

제2절 소프트랜딩(안착) 요인 분석

[그림 4-1] 연구참여자별 안착요인 연결표



1. 개인적 요인

1) 일자리를 갖게 된 동기가 뚜렷

- 전대전은 재계약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이지만 제2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함. 계약 기간 일하고 다음 계약까지 그 사이에는 여유롭게 즐기면서 지내고자 함. 이 일에 안착하기까지 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결과임
- 조강남은 현재의 일터가 집에서 가깝고, 일정 보수도 있고, 학생지도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김. 이 일의 시작은 아들이 재수한다고 하여 알게 되었지만, 주된 일자리와 비교해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고 나름 시간 여유도 있어 지속해서 하고자 함
- 전대전과 조강남은 무엇보다 눈높이를 낮춘 결과로 그 속에서 일의 의미를 찾아 안착한 것임

2) 직장생활 경력과 경험

- 직장생활 경력과 경험은 재취업의 가장 기본요소임. 연구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함. 전대전과 이일산은 영업직 근무 경력으로 재취업하였고, 이충남은 영업지원 직무 근무 경력으로 재취업을 이룸. 조강남은 현재의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직장에서의 조직 생활과 다년간의 교육과 인사 관련 업무 경험이 주요 요인이라고 봄

3) 필요 자격증 소유

- 전대전은 현재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명퇴 후 계약직 근무 기간에 취득해 놓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면접 합격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함
- 조강남은 학생 생활 지도를 하는 만큼 면접자들의 품성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 후 인성, 예절 관련 교육 수료 및 자격증,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함
- 이일산은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임. 그래서 퇴사한 지금 제빵/제과점 창업을 우선 고려함

4) 발로 뛰는 구직활동

- 이충남은 퇴사 후 두 번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직접 발로 찾아다녔음. 졸업 대학 학부를 찾아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선배 명단을 확보함. 마침 같은 과 졸업 선배가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통화하고 찾아감. 마침 노사관계 전문가를 찾고 있어서 자신의 노무 관련 업무 경험을 상세하게 어필 후 취업 통보를 받게 됨
- 전대전은 당부의 말을 남김

“직장생활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선배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라. 실업급여 받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그 지인들 덕분에 여러 일터를 알아보고 취업도 했다.”

2. 사회적 요인

1) 가족의 지원

- 전대전은 “맞벌이는 아니지만, 일부 임대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부담은 크게 부담은 없었다. 가족들도 이해하고 환영했다”라고 함
- 이충남은 “가족에게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겠다고 말하니, ‘그동안 수고했어!’라는 말에 힘이 생겼다”라고 함
- 조강남은 “다행히 맞벌이하고 있어서 생활 경제면에는 부담이 크게 없었으나 일하는 부인에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었다.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으나, 결국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 수고했다며 쉬면서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함
- 박부산은 누나와의 상담에서 용기를 얻음. 누나는 “할 일이 없겠냐.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 몇 달 쉬다가 같이 하자”고 말했다. 직장생활 하는 아내도 “쉬면서 할 일을 천천히 찾아보라”라고 했으며, “그 말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함

2)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

- 이충남의 첫 일자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알게 된 용역업체 관계자가 추천함. 지역 용역업체 대표가 되어 실업급여 수령 이후 공백기 없이 일자리를 갖게 됨. 대기업에서의 조직관리 및 용역관리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이일산 역시 첫 번째 주된 일자리에서 같이 근무한 선배가 사정을 알고 재입사 요청을 해왔기에 계약직 퇴사를 할 수 있었음. 두 번째 회사에서 영업관리자로 성장하여 업무 경험을 쌓은 것도 한몫했으리라 봄

3) 고용보험센터 구직활동 시스템

- 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지역 고용보험센터를 찾게 됨. 신청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 사이트에 가입하고 일자리와 수강하고 싶은 교육을 검색함

- 조강남도 당연히 지역 고용보협센터를 찾았고 동일 안내와 절차를 따랐음. 그는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너무 많은 내용과 정보 속에서 1:1 맞춤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함. 그동안 회사 울타리 내에서 살다가 무한경쟁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안내받고 적응해 가는 데 도움을 받음
- 전대전은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 전 징검다리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원 업무를 찾게 됨

4) 잘 갖춰진 취업포털 시스템

- 대표적인 취업포털은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사람인(www.saramin.co.kr), 인크루트(www.incruit.co.kr) 사이트 등이 있음. 전대전은 이러한 취업포털을 이용해 끊임없는 지원 활동을 함. 훨씬 좋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추천도 함. 조강남도 100여 곳에 지원서를 내보자고 마음을 먹은 것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임

3. 지역적 요인

- 연구참여자 중 수도권과 지방권 구분 시 지역적으로 정보 비대칭성과 재취업 지원제도 활용의 차이가 발생함
 - 부산 및 충남권의 경우에는 이번 질문지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중장년 취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거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정보제약과 한계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면 좋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받고 싶다.”(박부산)

- 반면, 수도권 거주자인 조강남의 경우

“2018년 10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를 처음 알게 되었다. 관심이 가는 교육이 있으니 수강해 보라고 했다.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티 지원제도를 알았다. 교육수강 동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2019년에는 3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등록하고 활동하였

다. 커뮤니티마다 회장, 총무, 회원으로 역할을 다했다. 또한 다른 지인의 소개로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통해 서울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도 수개월 동안 참여했다.”(조강남)

- 실제로 수도권은 서울시 50+중장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개인적인 검색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조기에 알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경력을 쌓고 이후 안착하는 데 도움을 받음
- 연구참여자는 수도권과 지방권 거주자들이 각각 3명임. 지역별 소프트랜딩 기간(계약직 종료 후 재취업까지)을 비교해 보면, 전체 참여자의 소프트랜딩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이고, 수도권은 9개월, 지방권은 13개월로 나타남.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 거주자들보다 약 4개월여 기간을 단축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제3절 정책적 제언

- 이번 당사자연구를 토대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1. 정부와 관계기관

1) 장기간(복수 연도 이상)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일자리, 보람일자리가 몇 개월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50+세대가 있음. 예를 들어, 60세/65세/70세까지로 나이를 구분하여 청년이 제공되는 일자리, 3년/5년/7년 등 복수 연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2) 50+세대 퇴직자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 재정립과 홍보 확대

- 이번 당사자연구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요인 중,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기를 바라는 점은 50+세대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의 재정립과 홍보 확대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들임. 이 또한 지역적 편차가 커서 이번 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서울시민이거나 혹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50+세대에 대

한 재취업 혹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존 제도에 대해 알거나 직접 체험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대전, 충남, 부산 등 지방 거주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참여 접근성 면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보임. 금번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어 아쉬움과 함께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방권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냄

-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중장년 퇴직 시점 기업체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50+ 전용 통합사이트 운영 및 책자를 나누어 주어 퇴직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안내하고 향후 활용하도록 함. 퇴직 시 소속기업에서 안내 책자 제작과 배포가 어렵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교육 및 나누어 주는 방안도 제안함

3) 50+세대 실업급여 신청 시 의무교육 별도 진행

- 이번 당사자연구 대상이 주로 50대 전후 퇴직자이고, 그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희망과 안착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노동시장 내 청년층의 재취업 사례와 비교 시 청년층과는 차이가 발생함. 청년층은 주된 일자리의 연속 선상에서 경력직으로 이동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기도 하지만, 50+세대의 다수는 경력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음. 우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임. 본 연구참여자들도 한 분야에서 20여 년 이상 재직하며 경력을 키워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함
- 결국, 수십 차례의 취업지원과 실패를 통해 소득, 직급 및 기업 규모 등 눈높이를 낮추어 재취업을 이룸. 50+세대 일자리의 지역적 차이는 있겠지만,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조차 실업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음. 개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실업 초기에 종합적인 안내도 필요함
- 50+세대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 시 의무교육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연구참여자 모두가 퇴사 시 실업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바 없었음.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의무교육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일정 절차에 대한 소개만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50+세대에게는 별도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여러 취업 관련 현황과 일자리,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이용 방법, 다양한 취업사이트

안내 및 이용 요령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기를 제안함

-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민관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인란에 50+세대의 지원 가능 유무가 명확히 표시된다면 많은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4)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및 적극적 홍보

- 이일산은 창업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음.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보조 일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아직 찾지를 못했음. 자격증 취득 후에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혀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현장과 연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특히, 자격증 취득 중장년층 대상으로 고용 메리트 제공 등 업무현장과 연계프로그램을 바라며, 누구나 듣고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나 안내가 필요함

5)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워크넷에 나와 있는 것을 추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정밀한 1:1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이미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었다. 실업률이 높다. 정부에서 중장년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운영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구직/구인 활동은 좋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 연계 부분이 매우 아쉽다”(이충남)

- 조강남은 서울시 일자리 포털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아 지원서를 냈지만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이에 어떠한 피드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함
-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 모두가 느끼는 사항으로 구인, 구직활동은 많은데 막상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함. 검색기능은 있지만 수많은 구직공고 중에서 적합한 기업을 찾기도 어려웠음. 좀 더 구체적인 1:1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2. 지자체

1)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금전적 보상제도 확대 및 다양화

- 나이가 50대인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주된 일자리를 은퇴함. 이때 실업과 경력단절을 겪으며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됨. 50+세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취업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임금의 소득을 보상해 주면 되고, 이러한 50+세대를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인원의 급여나 세금 지원이 필요함
- 박부산은 퇴사 후 재취업에 도전하면서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며, 금전적 보상제도를 제안함

“청년창업, 청년통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청년과 여성에 관한 지원책은 많이 들어왔다. 노년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30~40대는 경력직으로 재취업하면 된다. 50대가 문제다. 재취업도 안 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준비해 놓지 못한 본인 책임으로 느껴진다. 직장경력의 단절은 곧바로 소득 절벽이 된다. 50+세대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 벌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는가?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받고 싶다.”(박부산)

2) 50+세대 지원 기관의 지역별 설치 확대

- 연구참여자의 지역적 비교 시, 수도권과 지방권의 재취업 정보의 비대칭성과 재취업 지원제도 활용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감안,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장년 특화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현지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지역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함
- 또한 중장년 인력과 기업 간의 ‘만남의 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현실적인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됨

3. 기업

1) 50+세대 퇴직자 대상 경력관리 프로그램 홍보

- 이번 당사자연구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요인 중,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기를 바라는 점은 50+세대 대상 정책적 지원제도의 재정립과 홍보 확대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들임
-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중장년 퇴직 시점 기업체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50+ 전용 통합사이트 운영 및 홍보 책자를 나누어 주어 퇴직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안내하고 향후 활용하도록 함

2) 퇴직자 대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기업 확대

- 일부 대기업 위주로 퇴직 전 퇴직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매우 극소수 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이번 당사자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과 같이 퇴직 시 겪게 되는 퇴직 당사자와 기업 상호 간의 충격을 완화하고, 원만한 퇴직 과정과 이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인의 미래 일자리 조기 안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기업과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기업 '팬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 우호 관계를 유지함

4. 개인

1) 개인별 전략적 퇴직 관리 계획 수립

-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퇴직 나이가 지속해서 앞당겨지는 사회환경을 수용하고, 40세 중반부터는 퇴직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인지하고 개인별로 전략적인 퇴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2) 개인 직무경력기술서 작성

-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음.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존 직장생활을 수행하며 경험한 개인 역량과 직무기술을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함. 막상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시도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이력서이며, 특히 구체적인 직무경력기술서가 필요함. 퇴직 후 기억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회사 재직 시, 본인이 근무하면서 추진한 각종 직무성과와 장점을 추진과 제별, 시기별로 회사 시스템과 동료들 통해 퇴직 전 정리해 놓을 것을 제안함

3) 미래 진로연계 자격증 취득 및 IT와 인터넷 활용능력 배양

- 자신의 제2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로 활용됨. 이를 위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자격증 정보를 검색하고 취득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IT와 인터넷 활용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인 스킬로 배양해 놓을 필요가 있음

제4절 연구 활동 한계점

- 이번 당사자연구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점을 실감함. 실제 당사자연구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연구 시작 이후 일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가운데 문제해결과정을 거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당사자들의 역량 부족과 환경상 불가역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한계가 있었음

1.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의 한계

- 지난해부터 대유행한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지속되면서, 이번 당사자연구 활동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당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음
- 무엇보다도 질적 조사 연구팀으로서 연구참여자와 대면 면담이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행이 어렵게 되어 실제 조사자 중 일부는 기설계된 질문지와 전화인터뷰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방법적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대면 면담의 조사자료와의 질적 차이를 확연하게 실감하게 되었고, 부족한 내

용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면담 과정은 그 껍을 메우기에 역부족임을 아쉽게 생각함. 특히, 집단면담은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함

2. 지리적 접근의 한계

- 이번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 위치가 당사자연구팀원이 거주하는 수도권과는 거리가 먼 부산영남권, 대전충남권에 있었고, 물리적 거리의 접근 불편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지양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서 이동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면담을 다수 진행하게 된 점도 질문지 면담의 한계점으로 인식됨

3. 최초 표본 샘플 수와 연구대상자 선정과정의 대상 샘플 수의 한계

- 대체로 모든 활동에 있어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발생하듯, 이번 당사자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한계점 중 하나는 당초 설계한 표본 샘플 수 대비 선정과정에서의 최종 대상 샘플 수가 현저히 줄게 되어 질적 조사의 인터뷰 대상 수가 10명 이내로 축소 진행된 점이 매우 아쉬움

4. 재취업 외 다양한 사례의 한계

-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연구 당사자 연구활동의 호기심이기도 한 연구 참여자 선발이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임. 기존에 20여 년 이상 장기간 근속해 온 기업 내 직장생활이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자아실현이라는 차별화된 진로를 설계하는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확보해 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재취업 외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사례를 만나지 못하였음

5. 본 연구의 가치 및 추가 연구 필요

- 따라서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된 해당 동일기업 사무직군 출신들의 희망퇴직제도를 수용한 참여자만 표본으로 삼아 연구한 결과로는 50+세대를 대표하기에 부족함. 하지만 2020년 5월 1,000명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가 해당 제도 시행 전 퇴직하고 재취업까지 가교 구실을 한 소속회사의 희망퇴직제도(계약직 근무)

를 활용한 본 사례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표본을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참여자 관점에서 퇴직 후 노동시장으로의 신속한 재진입보다는 100세 시대의 하프타임을 맞이하여 향후 50년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삶과는 다른, 보다 다양한 경험과 시도과정을 통해 자아의 발견과 깨달음을 갖는 과정을 가져야 함. 그리고 시간에 떠밀려 수동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계획성과 주도적 진로설계의 프로세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유사하게 생각하는 중장년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계획을 세우고자 의도해 왔음
- 물론, 퇴직 후 가정 내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2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음.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나타나듯이 본인의 희망 일자리와 현실은 사뭇 다르며, 기대에 못 미치는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불만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경쟁력도 약할 수밖에 없음
- 연구 당사자 개인적으로 약 2년 6개월여간 소위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의 취직을 통한 규정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쉼의 시간을 갖고 지난 50여 년간 자신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자서전을 작성하며, 본인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하고 싶었던 혹은 시도해보고자 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내온 시간을 연구참여자들의 질문과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유의미한 과정을 거침. 금번 연구 활동의 기한으로 인해 해당 연구 과정 내에 이러한 비교분석의 연구 과정을 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번 연구 활동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이후 추가 진행될 개인 연구 활동을 추진해 보고자 함

부록

[붙임 1] 연구참여자 인터뷰 질문지 샘플

2021년 50+당사자연구

연구주제 :
(50+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당사자연구를 수행하는 소프트랜딩팀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 50+ 일·활동 사례를 지정기업 퇴직자를 중심으로 중장년 제2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좀 더 당사자의 필요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중간에 멘토링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일·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설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시50플러스 당사자 중장년 소프트랜딩 연구팀

연구참여자 질문지
안녕하세요?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 참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 정보 입력해 주세요
성명: 성별: (☐남, ☐여) 나이: (☐40대, ☐50대, ☐60대, ☐70 이상) 거주지: (시 구 동) 주된 일자리: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 ☐기타()) 현재 활동: (☐경제활동, ☐사회공헌, ☐취미, ☐기타())
소프트랜딩 추적연구 인터뷰 질문내용 ▶ 퇴직 관련 1. 귀하의 주된 일자리 퇴직(정규직) 시점은?(년 월) 2. 귀하의 주된 일자리 업무 경력은?(총 직장 근무 기간:) 3. 퇴직 사유는? 3-1.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4. 퇴직을 예상하고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5.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까?(예, 아니요) 5-1. 받았다면 수령 기간에 취업이 이루어졌습니까?(취업한 업종과 업무 포함) 5-2.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방법과 노력을 했습니까? 5-3. 취업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은?(다수 취업한 내용 모두 기재) 6. 퇴사 후 소프트랜딩(재취업 등)을 위해 본인이 준비한 활동(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현재 일자리 관련 1.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업종, 업무) 1-1. 시작 시점은?(재취업 시는 입사 연월) 1-2. 현재의 일을 하게 된 동기는? 1-3. 현재의 일자리를 얻게 된 성공 요인(능력/노력 요소)은? 1-4. 현재의 일자리를 얻게 된 사회적 도움(지원책)이 있습니까? (상세 내용: 지인 혹은 정부나 지자체, 기타 사회적 지원 등)

1-5.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6. 추가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제안한다면?

2. 퇴사 후 현재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재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2-1. 각각 취업 기간은?

2-2. 각각의 일을 하게 된 동기는?

2-3. 현재의 일자리를 얻게 된 성공요인(능력/노력 요소)은?

2-4. 현재의 일자리를 얻게 된 사회적 도움(지원책)이 있습니까?(상세 내용)

2-5.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6. 추가적인 사회적 지원책을 제안한다면?

3. 현재의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재취업(소프트랜딩)을 위해 노력한(취업지원/창업 시도) 횟수는? (실패사례)

3-1. 귀하가 생각하는 실패 원인은?(내적, 외적, 사회적 문제 등)

3-2. 상기 실패 원인을 극복하는 방안은?

3-3. 재취업(소프트랜딩) 성공을 위해 귀하가 노력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3-4. 추가로 사회적 도움(지원책)을 제안한다면 무엇입니까?

4. 귀하는 언제까지(나이) 일하고자 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취업의 경우)

(창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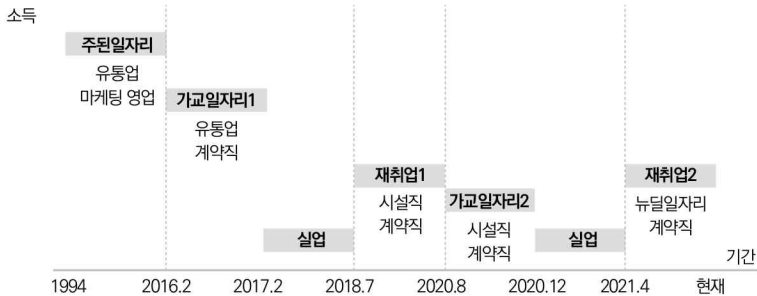
(사회적 봉사활동 외)

5. 퇴직예정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선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은?

6. 인터뷰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붙임 2] 연구참여자 인터뷰 내러티브

1. 김강북, 전통시장 매니저



김강북은 1965년생으로 입사 이래 마케팅 10년, 경영지원 4년, 영업 8년 등 총 22년 근무하였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에 명예퇴직(이하 명예퇴)을 받아들였다. 회사의 사직권고와 회사생활에 대한 지쳐온 감정이 있었다. 퇴직 후 금전적인 부분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다. 그렇지만 경쟁과 효율적으로 바쁘게 살아온 삶 속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였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퇴 조건으로 회사와 1년간 계약직 체결을 했다. 출근은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 당장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서 한겨레에서 하는 ‘느린 삶 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온종일 6개월 정도 다니기 시작했다. 느린 삶 학교가 지향하는 ‘느린 삶’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가리킨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고 그저 사회 속에 휩쓸려 살아가기 십상이다. 느린 삶 학교는 이 속도의 시대에 세계적 생태주의 운동인 ‘퍼머컬처(영속 농업)’ 사상을 토대로 ‘자신’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고민한다. 호주 생태 마을을 다녀온 강사의 생태농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삶을 공부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후 과천 농부학교를 또 6개월 정도 다녔다. 그 당시는 귀촌할 생각도 있었다. 그러는 도중에 실업급여 수령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도 귀찮아지고 있을 때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기술을 배워두면 늦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직종의 취업프로그램

중 귀촌 후에도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 평소 기술직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몸 쓰는 일 중에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17년 7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교통비, 식대 등도 지원받았다.

2018년 3월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2018년 6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전기기능사를 활용해 을지로입구역 패스트파이브 건물의 시설직으로 입사했다. 자격증이 있다 해도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입사가 쉽지는 않았다. 해당 건물이 리뉴얼 공사 중이어서 근무환경도 안 좋고 일도 많아져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곳이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입사했다. 리뉴얼 공사 중 계속 이직이 있었지만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꾀꿉이 버텨내어 2020년 8월 퇴사 시에는 그 회사 근무 경력이 제일 선임자이었다. 시설관리 업무가 3교대 근무라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전기기능사라는 직업도 일반 회사와 같이 팍팍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공공일자리는 좀 더 여유 있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 도전하기로 했다.

다행히 2020년 9월 양천구 시니어클럽에 입사하게 되었다. 주택연금공사의 독거노인 집수리를 해주는 일이었다.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고 2021년 4월 다시 서울시 일자리 포털을 통해 중구청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었다. 우선 2021년 말까지 근무하게 되고 계약이 연장되면 1년 더 할 수 있다. 방산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방산시장 관계자 1명과 본인, 2명만 근무하고 있다. 시설직으로 근무할 때보다는 부담 없이 근무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70세까지는 일하고자 한다. 반드시 전일제 근무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3~4시간씩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과거 경력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내 경력 중 주특기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등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데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답답했다. 과연 취업 기회가 있기는 한 건지,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등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에 휩싸였다.

그는 퇴직예정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선 경험자로서 몇 마디 조언한다.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 얘기에 휘둘리지 마라. 남 얘기에 휘둘리다

보면 피곤해진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이번 전통시장 매니저도 20번 이상 지원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원해서 취업한 것이다.”

이처럼 입사 도전을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한다.

2. 전대전, 공공기관 통계조사원



전대전은 1964년생으로 2015년 2월 말 명예퇴직(이하 명퇴)하게 되었다. 그는 2015년 초 명퇴 통보를 받고 퇴사 후 동일회사, 동일지점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2015년에는 회사가 명퇴자들에게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게 했다. 명퇴 후 계약직 근무는 하위 보직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급(기본 연봉 60% 수준)을 받는다.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출퇴근만 한다. 명퇴 이후의 충격을 완화하고, 퇴직 후 일거리를 찾아보도록 하는 기간이다. 그는 이 시기에 자격증을 준비해서 현재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았던 명퇴 통보를 받은 것이다. 2년의 계약직 출퇴근 시간은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계약직 근무 2년간 매월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출근은 하나 주어진 업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리고 취득했다. 특별히 뜻이 있었기보다는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회사 내에서 선후배를 마주칠 때면 간혹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강제로 퇴사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했다.

명퇴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선후배를 보면 수용하지 말고 계속 회사에서 일하라고 했다. 2년간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20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을 때도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퇴사한 경험자 이야기라며 재취업하기도 어렵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50대 퇴직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계약직 근무 기간이 종료된 후 그는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했다. 구직 대표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사람인(www.saramin.co.kr)에 이력서를 등재했다. 백화점 영업관리와 고객센터 업무로 주로 했던 그였지만, 50대로서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연락이 온 일들은 보험 영업, 급여가 낮은 일, 지원금도 없이 영업 후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로서는 선호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017년 말 실업급여가 종료됨에 따라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동안 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 마침 구두 판매를 하는 지인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서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해가 바뀌고 2018년 3월 초 판매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영업현장에서 영업 관리자로 10여 년 넘게 일했지만 직접 판매 업무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고객 응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판매현장에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수많은 판매 권유에도 사지 않는 고객들. 고객이 있을 때는 바빠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었다. 판매하는 직원들 고충을 이제 알았다. 영업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지인 소개로 가정생활품 판매회사에 영업담당으로 취업했다. 연봉은 적지만 소정의 영업활동비가 지원되어 출근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판매 활로를 개척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실적이 없어서 3달 하고 그만뒀다. 작은 회사에서 실적도 없이 급여 받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만둔 것은 지인으로부터 일자리 주선이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활품 판매업체를 그만두고 바로 축산업 가공업체에 들어갔다. 구두 판매를 같이했던 지인이 소개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7일 만에 퇴사했다. 축산업이다 보니 지방 산속에 있어 주말 부부를 해야 했고, 또한 퇴근 시간 없이 일해야 할 상황이었다. 업무 자체가 너무 생소한 데다,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딱히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서로 다른 업종의 회사를 몇 번 옮기면서 일자리를 찾는 기준을 다시 생각했다. 그동안은 급여와 근무환경을 중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급여는 적더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2018년 6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매일 접속했다. 본인 적성에 맞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한다. 마침 고용노동부 통계조사원(3개월)을 모집하고 있어서 지원했다. 통계를 위한 관내 회사들의 자료 조사를 하는 업무였다. 2:1 경쟁률로 면접을 보았고 경력자 우대임에도 경력도 없이 합격한 것을 좋아했다. 합격 이유를 물었다. 그가 추론하기로는 면접 시 정답에 제일 가까운 대답을 한 것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억나는 질문은 ‘파견직과 용역직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아 내겠습니까?’였다.

5명이 함께 면접을 보았다. 그에게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실무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물론 실무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지원자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명퇴 통보를 받고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것이다. 직업상담 업무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쓰인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지금까지 통계조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 한다. 마음도 편하고 이제야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3개월 연장도 가능하고 1년 내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이제는 많고 적고가 문제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가깝고 오전 9시, 오후 6시에 정시 출퇴근을 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한다. 다니면서 여러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기관에서 하는 통계조사원 업무도 많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원(총선, 대선, 조합장 선거 등), 산림청의 산림조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원 등 시기에 맞게 잘 맞추면 큰 공백 기간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이 통계조사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자 한다. 들어보니 동료 중에 64세 남성도 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임은 틀림없다.

그는 무기계약직 전환도 꿈꾼다. “2017년에 이 통계조사원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2018년에 한 명이 정년퇴직하여 충원했다. 매해 정년 퇴직자가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이 60세 이전의 꿈이다”라고 말한다. 작지만 소박한 꿈이다. 50대, 60대를 함께 할 일을

찾은 것이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내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였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시작된 통계조사원 업무를 작년부터는 통계청에서 기간제 요원으로 재계약하며 수행하고 있다.

이어서 말했다. “시간이 많다고 그냥 지낼 일이 아니다. 움직이면 뭔가 할 일이 생긴다. 워크넷 등 각종 사이트에 올라온 일들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연관된 다른 일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불러 주겠는가? 스스로 찾아보고, 만나보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직장생활하느라고 만나지 못했던 선배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라. 실업 급여 받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에 주력했다. 그 지인들 덕분에 여러 일터를 알아보고 취업도 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더라도 찾아가 만나면 여러 취업 사례들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간접경험이 된다. 계획적으로 주별 계획을 세워 전화하고 있다.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3. 이충남, 공기업 경영지원 관리자



이충남은 1964년생으로 2014년 4월에 명예퇴직(이하 명퇴) 통보를 받았다. 2년간 동일회사 동일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16년 4월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89년 대기업인 H사에 입사하여 줄곧 인사 노무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IMF 여파로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서 2001년도에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인사 노무 경력으로 인하여 경영지원 부서(4대 영역관리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명퇴 직전 1년은 영업팀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근무 기간 지방 중소 유통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 발생 현장에서 5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퇴사 후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 50세에 명퇴 통보는 충격이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로 하고 명퇴 결정을 했다.

계약직 근무는 출퇴근은 하되 특별한 업무는 주어지지 않았다. 시간 활용이 자유로웠다. 그래서 주로 독서와 교양 상식 함양으로 시간을 보내며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했다. 분량도 많고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2016년 4월 계약 기간도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재충전시간으로 쉬면서 전국 유명한 산 등산을 다녔다. 이후 기간에는 노동부주관 주택관리사 양성과정 3개월 무료 강좌도 수강하였다. 실업 기간 의무 구직활동으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취업 지원을 했지만, 연락 온 곳은 없었다. 나이나 경력이 채용조건에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날 무렵 취업전략을 다시 세웠다.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전공과 업무 경력 및 관리자 이상의 직책을 세세히 맞추어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노무 관계 업무와 그 경험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본부장, 실장급 이상의 직책을 채용하는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다행히 실업급여가 끝날 무렵 취업이 되었다. 직장 근무 시 알게 되었던 용역업체 회장으로부터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수락하였다. 마침 업무 경험이 있고, 사는 연고 지역이었다. 두 번째 회사에서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그때 알게 된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맺은 좋은 관계가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 다시 바쁜 일상을 갖게 되었다. 업체 대표로서 직원 관리를 하며 필요하다는 생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했다. 직원 심리 이해와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바쁜 생활 속에 몸이 아파 결국 2018년 3월 그만두었다. 일단 수술 후 요양을 하며 건강 회복에 주력하였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준으로 인적 네트워크

크를 최대한 가동하였다. 졸업한 대학을 찾아가 동문 기업인을 알아보고 자신의 업무 경력이 필요한 곳에 찾아 다녔다. 다행히 학과 선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노사관계에 정통한 관리자를 뽑고 있었다. 학연으로 인연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강조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강성노조 관리의 한계에 부딪혀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최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다. 선택과 집중에 맞는 구인공고가 있는지 여러 취업포털에서 검색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다양한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 마침 적합한 회사가 들어왔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일하는 용역업체인데, 경영지원실장을 뽑고 있었다. 시설/경비/청소/소방/방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였다. 유통업체 근무 시 10년 넘는 경영지원관리 경력과 노무/노사 관련 전문가로서의 업무 경험이 적중했던 것 같다. 2018년 11월에 취업이 되었다. 취업한 회사가 2019년 4월에 한국서부발전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뀌었다. 회사가 바뀌에 따라 직영사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고 올해 4월에 다시 재계약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 인생 2막 기간이지만 아직도 인생 1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엄청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행복한 푸념을 했다.

그는 말했다.

“경제적인 부담에 쫓기지 말고 자신의 업무 전공 분야를 공부해라. 업무 경력만으로는 안 되더라. 중소기업체 관리자로 가니 직접 실무도 처리해야 해서 할 일이 많았다. 1년이 다르게 경영환경이 바뀌고, 실무담당자부터 대표까지 일인다역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더 했다.

“우리는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었다. 실업률이 높다. 정부에서 중장년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운영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구직/구인 활동은 좋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 연계 부분이 매우 아쉽다. 따라서 개인들은 앉아서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 직접 발로 뛰며 찾아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적합한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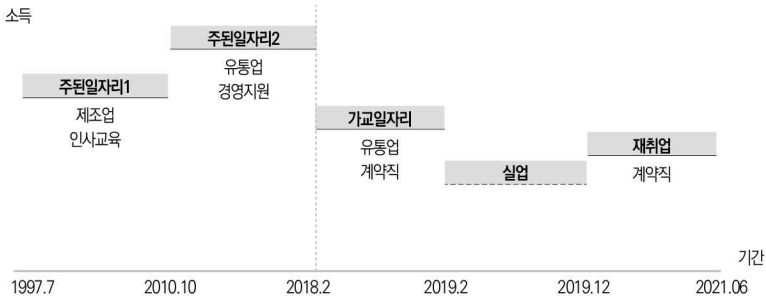
그는 직장생활이 이곳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후면 60세를 바라보는 나이다. 이후에는 노사/노무 관련 업무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필요로 하는 곳

을 직접 찾아 나설 것이다. 돈보다는 나를 원하면 도와줄 것이다. 출퇴근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시간에 나가서 자문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강의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부를 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앞으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 것이다. 웰다잉 관련 강사로 나서 볼 예정이다.”

그의 노후계획은 확고하다.

4. 조강남, 입시학원 생활 관리자



조강남은 1965년생으로 2018년 2월 말에 명예퇴직(이하 명퇴)하였다. 그는 2018년 초 명퇴 대상자로 통보받고 퇴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1년간 회사와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다. 2018년에는 회사가 명퇴자들에게 1년간 출근은 하지 않고 신분상 회사에 소속된 계약직으로 있게 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위로금 성격의 급여(전년 연봉의 70% 수준)로 지급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는 출근하게 하였지만, 해당연도부터는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갑자기 출퇴근에 대한 완충 기간이 없어져 버려 그는 매우 당혹스러워 퇴사 결정에 갈등을 많이 했다. 그래도 그 1년간 급여가 있다는 위로를 받으며 나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시도해 본, 시험적인 삶을 살아볼 기회가 되었다.

그는 장교로 군대를 전역하고, 곧바로 1990년 대기업 제조업체에 입사하였다. 교육/인사 업무를 하다가 IMF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2000년에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다행히 전 직장에서의 8년간의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다. 그래서 유통업체이긴 하나 영업직보다는 교육/지원(4대 용역관리 등)/고객서비스 등 사무관리직 업무를 관리자로서 주

로 수행하였다. 명퇴 직전 3년은 영업팀장을 하기도 했다. 사무관리직으로 직장 내 성장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2018년 초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명퇴 대상자가 되었다.

결국, 명퇴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언젠가는 명퇴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더군다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제도가 변경되었다. 명퇴를 하면 1년간 계약직 체결은 하지만 출퇴근은 하지 못하게 했다. 처음에는 출퇴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앞서 퇴직한 선협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출퇴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2 인생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협자 의견은 하위 보직이라도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좋으며, 퇴사하면 그만큼 급여 받는 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2018년 2월 말 퇴사를 하고, 일단 1년간 계약직을 체결했다. 그나마 아직은 소속이 있고 급여생활자라는 것이 위로되었다. 막상 출근하지 않으니, 종일 집에 있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가 우선했던 일은 지인들과 통화하고,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러 다녔다. 퇴사했다 하니, 대부분이 쉬면서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추천해 주었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쏟아졌다.

‘생각을 바꾸어 관심 있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기가 쉽다(전기 기능사, 용접/타일/도배/원에 관련 자격증 등).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니, 공인 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해라.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서예 공부, 서예 작품전 출품, 서예 강사, 한자 한문 공부- 방과 후 선생님, 글쓰기, 책 출간하기 등). 교육부서 근무 및 사내강사도 했으니, 인성/웰다잉 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농촌이 고향이니 귀농프로그램을 신청, 이수하라는 분도 있었고, 눈높이를 낮추고, 인맥을 살려 지인을 만나면 취업을 부탁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통업에 있었으니, 유통 일을 같이 해보자는 지인도 있었고, 자동차판매업을 등록하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소자본 자동세차장을 운영하라고도 했다. 여행을 다녀 보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취업사이트에 등록해서 찾아보라고도 했다.

수없이 많은 조언과 추천 직업 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우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책 쓰기 공부였다. 지인 중에 나름 유명 저자이면서 1:1 책 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선배를 만나 책 쓰기 수업을 6개월간 받았다. 당연히 도서관을 다니게 되었고 출퇴근이 없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

다. 수업과 다른 일이 없으면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다. 아울러, 취미 삼아 계속 해왔던 서예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지금도 다니고 있으며, 10여 년 가까이 계속 해왔던 일이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한식 요리 수업도 신청하여 수료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과 직장생활로 바쁜 아내로 인해 혼자 밥을 먹거나, 저녁을 준비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하고 배웠다. 그 당시 아빠 요리는 집에서 이벤트가 되었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 OB 모임과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모임, 군대 동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친구들도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듣고 알게 되어 관심 두게 된 대한검정회 한자/한문 교육, 성균관 인성/예절/문묘 해설 강사 양성 교육, 강남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전자책 쓰기 수강과 전자책 공동출판 5권 참여, 성북구 50플러스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수강 및 어머니 자서전 출판, 서울시50플러스 서부 캠퍼스 교육수강 및 커뮤니티 활동 등 해가 바뀌며 더욱 확장되고 활성화되었다. 2019년에는 영등포 50플러스센터를 통해 서울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했다.

회사와의 1년 계약직이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수령액은 계약직 때보다 반도 안 되었지만, 2019년 11월까지의 준 급여생활자(?)가 되었으며, 그래도 힘이 되었다.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 사이트와 잡코리아, 사람인에 가입하였다. 처음에는 구직 의무활동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실업급여가 끝나갈 때가 되니 취업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 9월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 100곳을 지원해 보자고 마음먹고 취업사이트를 뒤져가며 지원서를 냈다. 그러나 연락 오는 곳은 없었다. 막연하게 나이가 많아서, 또는 경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만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원하려는 회사 채용담당자와 통화해서 채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그렇다고 단순노무직, 기간제 업무를 찾기에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듭된 취업 실패로 지원횟수가 늘어나면서 눈높이도 낮아졌다.

2019년 11월 고3인 막내가 재수하기로 했다. 여러 재수학원을 검색하는 와중에 학원에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들이 보였다. 아들도 재수하니 아빠도 함께 재수 생활한다는 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수학원 여러 곳을 지원했다. 그 중에 다행히 인근 지역 거주자로 50대를 뽑는 곳이 있었다. 46번째 지원서였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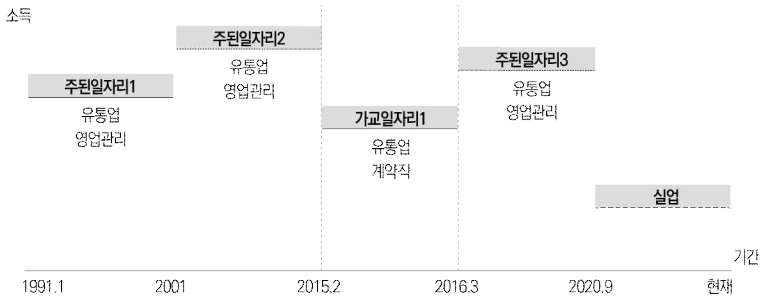
기업에서의 조직생활, 특히 교육/연수 분야에서의 근무경험, 인성/예절 관련 자격증(올바른 인성), 장교 출신 등의 경력과 경험은 충분했고, 50대 중반에 인근 거주자라 그런지 드디어 연락이 왔다. 급여 수준은 낮더라도 학생들을 선도하는 일이니 가치있게 느껴졌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2020년도에 근무를 하고 2021년도에도 재계약을 해서 다니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일하고 있어서 지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구직활동 지원서는 46번째에서 멈추었다.

그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업무 강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에 스트레스도 없고 집에서 가까워 재미있게 다니고 있다. 아들은 재수에 성공했지만, 중소기업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 만큼 이곳에서 좀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는 그가 선형자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거의 없고,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퇴직해도 할 일은 많다. 희망소독은 낮아지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울러, 자신의 직장생활 업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자료화해 놓아라. 기왕이면 퇴직 전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아라. 재취업 이력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업무와 연계하여 퇴직 후 진출 가능한 일과 관련되거나,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놓아라. 제2 인생에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5. 이일산, 유통업 영업관리자



이일산은 1965년생으로 2015년 2월 말 명예퇴직(이하 명퇴)하게 되었다. 그는 2015년 초 명퇴 통보를 받고 하위직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2년간 계약직 근무조건으로 수용하였다. 계약직은 일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은 하지만 업무 수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퇴 충격을 완화하고 퇴직 후 새로운 일이나 창업 거리를 찾아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1년 초 중견 유통업체에 입사하여 3년간 기획팀에서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다. 그 이후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다가 IMF 여파로 구조조정이 일어나 2001년에 첫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대기업 유통업체로 이직하였다. 영업관리 업무 경력으로 이직한 업체에서도 줄곧 영업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업직으로만 21년간 일했다. 계약직 근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제빵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아울러 제빵/제과점을 창업할 목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권분석을 하였다. 빵 냄새도 좋고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일하고 빵도 좋은 기부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또 다른 창업 항목으로 당구장도 생각하고 상권분석을 하고 다녔다. 더불어 자격증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취득하지는 못 했다.

나름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절이라 할 수 있는 첫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다시 입사할 수 있느냐는 요청이 들어 왔다. 그러나 그때는 새로운 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2015년 말에 계약직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이 시점에서 퇴직하면 2년 계약 기간 중 잔여기간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마침 첫 회사에서 계속 재입사를 원하고 있어서 계약직 퇴사를 수용하였다. 비록 만 50세에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지만 주된 일자리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참 다행이었다.

계약직 근무 동안 취업하려는 동료들을 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첫 회사에서 모셨던 상사가 경영진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니 불려 준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재채용이 되었다. 물론, 영업직으로 주된 업무 경력을 쌓았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명퇴 권고를 받았을 때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혼란스러웠지만, 같은 처지의 선후배들과 비교해 볼 때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유통업체가 너무나 어려웠다. 2020년 가을 그는 다시 한 번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 영업 실적에 대한 책임이 무거웠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크게 없다. 이제는 자녀도 든든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다. 무슨 일을 할지 천천히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고향의 친인척도 찾아보고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있다. 아직은 여유를 갖고자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격언을 떠올렸다. 제대로 된 일을 찾고자 한다.

먼저 몇 년 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이도 있어서 취업할 생각은 없다.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인으로부터 제주도에서 개발 중인 쇼핑몰을 맡아 운영 및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사양했다. 아직 분양 중이었고 상권 형성까지 너무 멀어 보였다. 무엇보다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여전히 그는 창업에 관심이 있다.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듯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빵/제과점과 당구장은 지금도 창업 1순위로 생각 중이다.

창업하려다 보니 창업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일정 기간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혀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현장과 연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본인이 제빵/제과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보조 일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데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한다. 특히,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업무현장과 연계프로그램을 바란다. 혹시 있다면 누구나 듣고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나 안내가 있으면 한다.

그는 재취업의 원동력을 말한다.

“직장생활하며 맺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맺은 관계가 나를 끌어준 것이다. 쇼핑몰을 맡아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또 하나는 회사를 바꾸면서 동일업종에 동일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주된 경력과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해당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등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라.”

6. 박부산, 대출상담사



박부산은 1966년생으로 입사 후 바이어 2년, 경영지원 3년, 영업관리 20년으로 총 25년 근무하였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2월에 명예 퇴직(이하 명퇴) 통보를 받고 퇴사를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화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명퇴를 수용하지 않으면 낮은 보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맘에 들지 않았다. 경매 컨설턴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누나와의 상담에서 용기를 얻었다. 누나는 “할 일이 없겠나.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 몇 달 쉬다가 같이 하자”고 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제2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명퇴 조건으로 주어지는 회사와의 1년간 계약직 근무를 체결하였다. 다행히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2018년에는 회사가 명퇴자들에게 1년간 출근은 하지 않고 신분상 회사에 소속된 계약직으로 있게 했다. 전년까지만 해도 출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위로금 성격의 급여(전년 연봉의 60% 수준)로 지급되었다.

3월과 4월에는 피폐해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도 쉬면서 할 일을 천천히 찾아보라고 했다. 힘이 되었다. 딱히 계획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상 무슨 일을 할지 생각되는 것도 없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5월부터 누나 사무실로 출근했다. 대출상담사 업무를 배워보기로 하였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

대출상담사는 경매, 공매, 일반 매매 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현재 4년 차, 만 3년을 넘게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 타인에게 명함을 돌리며 대출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너무나 생소하고 창피했다. 계약직 근무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있어서 스스로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당연히 실적은 거의 없었고 누나에게 용돈을 받는 정도였다. 지금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취업한 주변 동료들보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까지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원서를 낸 곳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경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나이 때문인 것 같았다. 의류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지만, 평판도 조사를 해보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먼저, 정년 없이 계속 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는 활용 가능한 내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오전에 법원에 가서 대면 대출 영업을 하고 오후에는 전화 상담 등 업무를 한다. 주말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 직장에 비하면 근무시간도 훨씬 짧고 업무 강도도 매우 낮다. 셋째는 현재의 수입에 만족하니 실적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처음에는 실적과 수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상품개발을 많이 했고 유통업체에서 다져진 친절성으로 고객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격언을 인용하여 수입에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한다. '활황인 소장에서도 돈을 벌고, 불황인 곰장에서도 돈을 번다. 돼지(욕심만 많은 사람)는 돈을 못 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을 알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회사 다니면서 자기계발 차원에서 취득해 놓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는 퇴직예정자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자격증을 따라. 기왕이면 현역으로 있을 때 취득해 놓으면 훨씬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공부해라. 나도 50세를 바라보면서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 했으나, 일에 밀려 준비하지 못했다. 너무 아쉽다. 둘째는 회사를 믿지 마라. 직장생활이 전부가 아니더라. 퇴사해 보니 얼마든지 대안은 있더라. 셋째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이다. 퇴직하고 수입이 없을 때 아내에게 미안했다. 아내는 맞벌이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제는 나도 벌고 있으니

괜찮다. 가족의 응원이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

퇴사 후 재취업에 도전하면서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다. 한마디 덧붙인다.

“청년창업, 청년통장,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청년과 여성에 관한 지원책은 많이 들어봤다. 노년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30~40대는 경력직으로 재취업하면 된다. 50대가 문제다. 재취업도 안 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준비해 놓지 못한 본인 책임으로 느껴진다. 직장경력의 단절은 곧바로 소득 절벽이 된다. 50+세대에게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 벌면 1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는가? 50+세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안내받고 싶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고봉태. (2015년). 인생 2막 성공사례와 노후준비 솔루션. 어른의 시간.
- 고영선. 김대호 외 9명. (2016년). 노동의 미래. 문우사.
- 고용노동부. (2017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사업 및 제도. 진한엠앤비.
- 권일진·김희연·정나일선. (2017년). 비전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효과 검증연구.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영기·조은주 외 19명. (2020년). 재취업 전직 지원서비스 효과적 모델. 랫즈북.
- 안기선. (2011). 중고령 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와 11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박사학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서산.
- 오영수·이수영 외 2명. (2020년). 백세시대 생애 설계. 서울: 박영사.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정원. (2015년). 창직이 미래다. 해드림출판사.
- 이진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신중년의 100세 시대를 사는 법. 서울: 더로드.
- 임동호. (2020년). 양코르 커리어 인생 2막, 퇴직 후 인생설계지혜. 디자인파트너.
- 장은령. (2000).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미치는 변인 연구(석사학위). 서울신학대학교, 서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0). 중장년층의 전직 지원 방안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 (2014). 사무직 베이비붐 세대 퇴직설계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 (2017).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3차년도).
- 한국고용정보원. (2017). 중장년층의 경력 특성과 지원정책 방안.
- 한국고용정보원. (2019). 신중년 경력설계 안내서.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Frankl, V. E.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New York: Washington Squarte Press.

Hall, Calvin S. & Nordby, Vernon J. 김형섭 역. (2017). 융 심리학 입문. 서울: 문예출판사. 2012, pp.151~153.

Sage publications.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2000). 질적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조흥신·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논문

강진숙. (2016). 질적 연구방법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서울: 지금.

구자복. (2019). 대기업 임원들이 비자발적 퇴직 이후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pp.249-277.

권일진·김희연·정나일선. (2017). 비전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효과 검증연구. 50+당사자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pp.17~24.

권일진·이광민·황정일·강해정. (2020). 50+세대의 진로 전환 사례연구. 50+당사자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pp.13~19.

김경희·정혜정. (2017). 베이비부머 은퇴 남성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고학력 중산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 (4), pp.839-862.

김경은·곽금주·민하영·최지영·전숙영. (2011). 한국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 발달학회 18(3), pp.135-155.

김기흥·임연·이정표. (2008).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나래·홍아정. (2015). 중장년 구직자의 사회적지지가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폐기 학습의 매개효과. 평생교육학 연구 22(2), pp.109~136.

김나형·진성미. (2013). 중장년층 경력전환에서 경력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 HRD 연구 8(1), pp.28~53.

김래경·장선철. (2018). 중장년 사무직 남성의 진로전환 경험,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

김양희. (2016).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6(2), pp.344-353.

김영문. (2020).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50플러스 세대 일하기 과정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은석·정명진·송스란·박노정·김선미·김슬기. (2018). 이제는 신중년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양안나·장서영·하지영·송스란. (2017).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발달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3차연도). 한국고용정보원.

김태현·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pp.99-120.

김현민·김연희. (2020).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성공 사례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나영선·박동·김수원. (2013). 중장년층 퇴직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선영·유현실. (2019). 사무직 중년 남성의 퇴직과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상담학연구.

박준범. (2019).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성미애·최새은. (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8권 9호, pp.13-25

유지룡·임승희. (2014). 중년기 남성의 조기퇴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금융권 퇴직자 중심으로 -. 지역과 세계 38(3), pp.189-217.

이병길. (2018). 50플러스 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은숙. (2018). 50플러스 세대 퇴직 여성의 진로 전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이은영·전보라·윤소정. (2019). 비자발적 퇴직자의 퇴직 경험과 의미에 대한 심리상담적 접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 pp.1347-1369.

이응목·유기웅. (2017). 퇴직한 중년남성의 재취업과정 탐색. 사회과학연구 28(2), pp.59-78.

전현영·손은령. (2014). 50대 남성직장인의 진로전환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5(2), pp.675-694.

정태연. (2018). 중단연구의 가치: 삶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판. 한국노년학연 27(1), pp.1-6.

조원지·한혜경. (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6권 1호, pp.1-20.

최보결. (2017). 50플러스 지역사회연계 교육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과정 모델 개발: 마을 교육 생태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기타

통계청 보도자료(2020.7.28.).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참고사이트

서울시50플러스재단. <https://50plus.or.kr/org/intro.do> (검색일: 2021. 06. 2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보고서 <https://www.keis.or.kr> (검색일: 2021. 07. 09.).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 (검색일: 2021. 07. 03.).

서울시50플러스재단 당사자연구 보고서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문혜정

편집인 황윤주

책임자 권현진

연구자 조영기 · 구본용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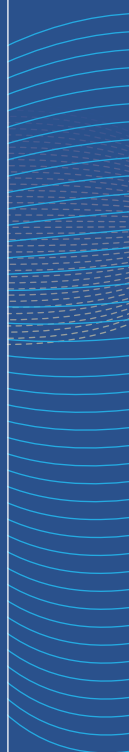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이 책의 판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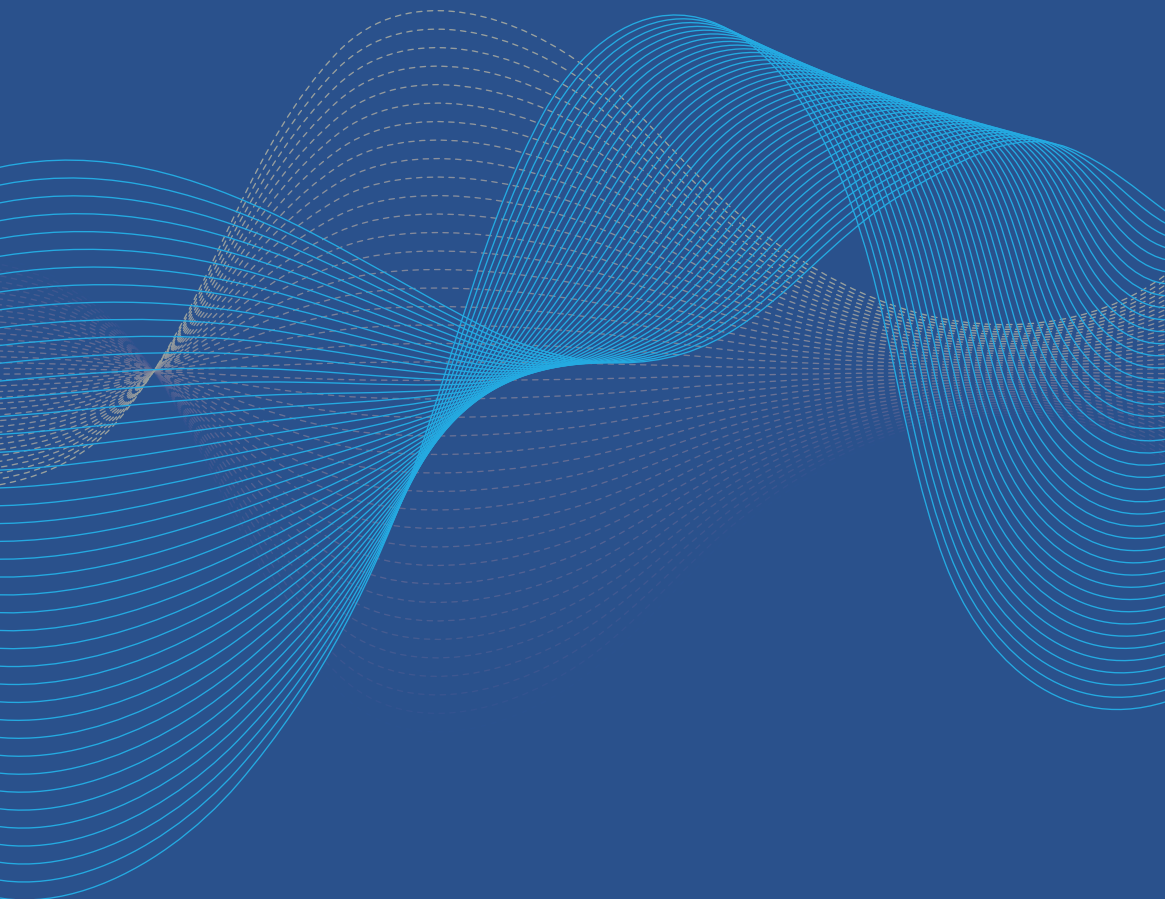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21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21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50plus.or.kr

- 
- 1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모형 개발
 - 2 50+세대의 부모 돌봄 경험 연구
 - 3 중장년 퇴사 후 노동시장 재진입 Soft Landing 사례연구
- 동일기업 사무직 군 중장년 퇴직자 대상
 - 4 창업시장에서 50+세대의 멘토와 밀레니얼 세대 멘티와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 5 희망돌봄미 사업 참여자가 느낀 일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
 - 6 50+세대의 가구형태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 7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
 - 8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중고령자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 9 1인가구 특성 분석에 따른 중장년 고독사 해법방안
 - 10 중장년의 일의 의미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 11 포스트 코로나, New normal을 준비하다
50+패널데이터 구축 제안
 - 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비대면 교육 경험을 통한
변화와 사회참여 역할의 실천과제

서울시50플러스 2021-004



9 791189 011697
ISBN 979-11-89011-69-7

비매품/무료

933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